

남북대화연표(94-Ⅲ)

〈1994. 7. 1~9. 30〉

통 일 원
(남북회담사무국)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7. 1	<p>0 南北정상회담 실무절차 협의를 위한 제1차 대표접촉 (판문점 『 통일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단 구성과 규모, 회담형식, 체류일정, 선발대 파견, 왕래절차, 편의보장, 신변안전보장, 기타 實務節次문제 협의 <p>* 남측 대표 : 尹汝雋, 具本泰, 嚴翼駿 북측 대표 : 백남준, 최승철, 최성익</p> <p>0 金泳三 대통령, 무라야마 신임 日총리와 北核 긴밀 협조체제 유지 합의</p> <p>* 전화통화</p> <p>0 韓·美·日, 3단계 고위급 회담 대비 實務協議</p> <p>* 金三勳 핵전담대사, 갈루치 美국무차관보, 가와지마 日아주국장 참석 (워싱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핵문제의 현재와 미래뿐 아니라 過去문제도 함께 해결돼야 한다는데 의견 일치 <p>0 韓國林學會, 북한에 솔잎 흑파리 공동연구 제의</p> <p>* '94 학술연구발표대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강산 보호를 위해 남북한 학자가 만나 공동으로 솔잎흑파리에 대해 연구할 것을 제의 	<p>0 『 祖平統 』 서기국, 李榮德 국무총리의 남북정상회담시 핵문제 논의 발언 비난 報道</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南최고위급회담에서 핵문제를 토의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北과 南의 최고위급들이 알아서 할 일임. - 핵문제를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시비하는 것은 北南최고위급회담에 샷대질하는 것이 아닐 수 없음. - 北과 南은 현시점에서 북남최고위급회담 분위기를 흐리게 하는 언동을 하지 말아야 함. <p>0 金日成, 싸미투 신임 요르단 대사 接見</p> <p>0 조선인민군 차수 주도일 (黨군사무원·국방위원) 사망</p>	<p>0 클린턴 美대통령, 對北관계개선 시사</p> <p>* 日 마이니치신문 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문제를 넘어 대화를 확대하고 싶음. - 현시점에서 북한이 1~2개의 원자폭탄 보유능력을 가졌느냐 여부보다 장래 核을 제조할 가능성이 있는냐의 문제가 더 걱정임. <p>0 무라야마 日총리, 기존 對한반도정책 유지 방침 표명</p> <p>* 취임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당과 북한노동당의 관계는 당과 당의 관계에 불과하며, 정부로서는 그동안 구축해온 對한반도정책을 유지할 방침임. - 北核문제는 韓·美·日 3국간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면서 대화에 의한 해결을 모색할 것임.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7. 1			<p>0 李鵬 중국총리, 남북 정상회담 성공 희망 * 기자회견</p> <p>- 중국은 남북정상회담과 美·北 고위급회담이 성공하기를 희망함.</p> <p>- 이같은 일련의 회담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하더라도 앞으로 계속돼야 할 것임.</p>
7. 2	<p>0 南北정상회담 실무절차 협의를 위한 제2차 대표접촉 (판문점 『평화의 집』)</p> <p>※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실무절차 合意書』 채택</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표단 구성과 규모 : 수행원 100명, 취재기자 80명 2. 회담형식 : 단독회담, 보좌요원 2~3명과 기록요원 1명 배석 3. 체류일정 : 2박 3일, 필요시 연장 4. 실무자접촉 : 7. 13 ~16 평양, 각기 17명 참가 선발대파견 : 방문 3일전 25명 파견 경호문제 관련 실무접촉 : 7. 8, 판문점 『통일각』 통신문제 관련 실무접촉 : 7. 7, 판문점 『평화의 집』 5. 왕래절차 : 대표단 명단 방문 7일전 통보 실무자접촉과 선발대 명단 방문 4일전 통보 6. 편의보장 : 북측은 통신·숙식·의료 등 모든 편의 제공 1일 2회 행낭운반 보장 7. 신변안전보장 : 북측은 총리명의로의 신변안전보장각서를 방문 3일전 남측에 전달 		<p>0 美, 對北 핫라인 제의 방침 * 日 교도통신, 美정부당국자 인용 보도</p> <p>- 美國은 3단계회담에서 상호 불신 해소를 위해 핫라인 설치, 군사정보 공개 및 정보교환 등 몇가지 신뢰조성장치를 제안할 방침임.</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7. 2	<p>8. 수행원·기자의 표지 : 수행원 표지는 양측이 각기 편리한대로 하고, 기자는 완장 착용</p> <p>9. 회담장 표지 및 시설 : 어떤 표지도 하지 않음.</p> <p>10. 회담기록 : 속기·녹음·녹화 등 각기 편리한대로 함.</p> <p>11. 회담보도 : 북측은 남측의 실황중계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설비·인원을 최우선적으로 보장 TV영상송출을 위한 전송로 및 위성중계를 위한 편의 제공</p> <p>12. 취재활동 : 북측은 남측기자의 취재활동을 보장 쌍방은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기함.</p> <p>13. 기타 실무절차 : 남측은 서울·평양간 직통전화선 이용 기타 실무절차문제는 남북고위급회담의 관례에 따름.</p> <p>14. 합의서 발효 : 쌍방이 서명, 교환한 날부터 효력 발생</p> <p>0 政府, 남북 4개간선도로망 구축 추진</p> <p>* 제11차 新경제추진회의, 『중장기 사회간접자본확충계획』 확정</p> <p>- 서울~신의주, 원주~혜산, 서울~만포, 강릉~선봉 노선 등 남북을 연결하는 4개 간선도로망 구축 추진</p> <p>0 安企部, 『구국전위』간첩단 사건 발표</p> <p>* 조직총책 安在求(61) 등 23명</p>	<p>0 中央放送, 남북정상회담 실무절차 합의서 채택 보도</p> <p>- 실무절차 합의서까지 채택됨으로써 근 반세기에 걸치는 민족분단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北南최고위급의 평양회담이 성공적으로 열리게 되었으며 北과 南, 해외동포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게 되었음.</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7. 4	<p>0 金泳三 대통령, 이산가족 문제를 頂上회담 주의제로 제시 방침 * 以北출신 인사 초청 오찬</p> <p>- 인도적 입장에서 離散家族의 고향방문이 이루어 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음. 이 문제를 중요한 의제중 하나로 제기하겠음.</p> <p>0 李榮德 국무총리, 3者회담 不고려 표명 * 국회 본회의 답변</p> <p>- 남북한 및 미국간 3者회담은 어떠한 경우든 한반도문제의 당사자 해결 원칙에 따라 고려하지 않고 있음.</p> <p>0 李洪九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핵문제 진전없이 남북경협 不추진 언급 * 국회 본회의 답변</p> <p>- 북한 핵문제의 진전없이 南北經協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임.</p> <p>- 핵문제의 진전에 따라 단계적 경협의 추진이 있을 것에 대비한 다각적인 대</p>	<p>0 勞動新聞,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는 '환영할 만한 역사적 사변' 이라고 평가(社說)</p> <p>- 北南최고위급회담 개최 합의는 조국통일을 외세의 간섭없이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평화적으로 실현할 데 대한 민족적 의지의 발현이고 '90년대에 祖國統一을 반드시 이룩할데 대한 겨레의 염원의 반영으로서 환영할 만한 역사적 사변임.</p> <p>- 北南최고위급회담이 일정에 오른 오늘 일찍이 7.4 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 원칙은 더욱 더 커다란 현실적 의미를 가짐.</p> <p>- 민족자주정신과 민족적 입장에서 출발한다면 최고위급회담은 성과적으로 진행되어 '90年代 統一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놓는 역사적 계기로 될 것임.</p> <p>0 平壤放送, 金正日이 통일문제 영도 주장</p> <p>-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 투쟁과 북남대화에서 이룩된 성과들은 조국통일을 위해서 모든 정력을 기울이는 金正日의 세련된 영도를 떠나서 생각할</p>	<p>0 갈루치 美 국무차관보, 美·北 전면 수교 가능 언급 * 뉴스위크誌 인터뷰</p> <p>- 북한이 국제사회의 룰을 지키고 남북한간 관계개선이 이뤄지면 美·北韓간 전면적 국교 수립이 가능할 것임.</p> <p>- 3단계 고위급회담이 결렬될 경우 북한 핵문제는 UN 안보리로 되돌려질 것임.</p> <p>- 북한의 핵개발 포기 대가로 미국이 제시할 반대급부중 하나는 세계 각국과 정치적·경제적 관계개선을 통해 북한이 얻게 될 혜택임.</p> <p>0 키드 IAEA 대변인, 사찰요원 2명 지난 주 入北 확인</p> <p>- IAEA 사찰요원 2명이 지난주 寧邊 핵단지를 방문했음.</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7. 4	<p>책을 세워두고 있음.</p> <p>- 統一憲法은 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 방안의 최종단계에서 채택될 것이며, 내용은 자유·복지·인간존엄성을 조장하는 복지민주국가를 지향하게 될 것임.</p>	<p>수 없음.</p>	
7. 5	<p>0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부총리급 예비접촉 李洪九 수석대표, 통신 및 경호실 무자접촉 참가 남측대표 명단 통보 對北電通文</p> <p>< 통신실무자접촉 ></p> <p>- 류익현(청와대 통신국장) 박영환(청와대 공보비서관, 방송담당) 정용대(청와대 통신심의관)</p> <p>< 경호실무자접촉 ></p> <p>- 김광주(청와대 경호국장) 정한유(청와대 경호부국장) 정해창(청와대 경호부국장)</p> <p>0 金泳三 대통령, 평화정착과 신뢰구축이 정상회담의 중요 목적이라고 언급</p>	<p>0 『祖平統』서기국, '구국전위 간첩단' 사건 발표관련 회담 분위기를 흐리게 하는 행동이라고 비난(報道)</p> <p>0 외교부 부부장 강석주, 美·北 3단계 고위급회담 참가차 평양 출발</p>	<p>0 게리 럭 駐韓미군 사령관, 미군 계속 주둔 언급</p> <p>* 韓美우호협회 연설</p> <p>- 美軍은 다른 복잡한 세계적 현안이 대두되더라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계속 韓半島에 주둔할 것임.</p> <p>0 臺灣, 중국 대표권 경쟁 포기 발표</p> <p>* 대륙위원회 공개 統一白書</p> <p>- 이미 본토와 적대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전시비상조치법을 폐지했으며 공산정부와 더이상 中國의 대표권 다툼을 벌이지 않고 있음.</p>

■ 7 월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7. 5	<p>* 『民主平統』운영위원 접견</p> <p>- 平壤에 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간에 신 뢰를 구축하는 것임.</p> <p>※ 『民主平統』, 정상회담 의제 7개항 건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상호 체제인정·긴장완화 를 통한 한반도 평화보장 ② 3단계 민주평화통일 대원 칙 천명 ③ 고향방문·판문점면회소 설치 등 이산가족 및 인 도적 문제 해결 ④ 남북대화 재개 및 기본합 의서 이행 ⑤ 한반도 비핵화 천명 ⑥ 백두산 및 금강산 공동개 발 등 관광개발 ⑦ 경제협력 <p>0 李洪九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정상회담에서 吸收 統一 반대의사 공식 전달 언급</p> <p>* 국회 본회의 답변</p> <p>- 金대통령은 북한을 흡수 통일 않겠다는 의사를 여 러번 밝힌 바 있음. 이갈 은 뜻이 이번 頂上會談에 서 직접 전달될 것임.</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7. 6	<p>0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개최 * 남북정상회담과 美·北 3단계회담 대책 논의</p> <p>0 李榮德 국무총리, 核 해결 되면 남북經協 재개 언급 * 국회 본회의 답변</p> <p>- 북한의 核투명성이 보장 되면 언제라도 남북經協 을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생각임.</p> <p>-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 한 신뢰구축기반이 조성 되면 광범위한 남북經協 활동이 추진될 수 있을 것임.</p>	<p>0 북남최고위급회담을 위한 부총 리급 예비접촉 북측단장 김용 순, 통신 및 경호 실무자접촉 참가 북측대표 명단 통보 對南 電通文</p> <p>< 통신실무자접촉 ></p> <p>- 김명호(체신부 국장) 한명환(체신부 부국장, 방송 담당) 이영림(체신부 과장)</p> <p>< 호위실무자접촉 ></p> <p>- 최 춘(호위총국 부장) 리재용(호위총국 참모) 리금철(호위총국 참모)</p> <p>0 美·北 3단계회담 참가 북한 대표단, 제네바 도착</p> <p>< 도착성명 ></p> <p>- 그동안의 사태발전은 압력과 위협으로는 우리의 핵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귀중한 교훈을 주고 있음.</p> <p>- 핵문제를 포함한 朝·美사이 의 현안문제들은 오해와 불신에 근원을 두고 있음.</p> <p>0 金日成, 경제건설과업에 대한 지침 제시</p>	<p>0 카터 前 美대통령, 北韓의 對日수교 희망 메시지 언급 * 도쿄 기자회견</p> <p>- 김일성과 회담시 日정부에 보내는 메시지를 부탁받았 으며, 김일성은 이 메시지의 전달로 일본과의 외교관계 가 수립되는 것을 희망하고 있음.</p> <p>- 金日成은 이산가족 의 재회와 상호 방 문에도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음. 우선 시험케이스로 70세 이상 노인들 의 面會를 시작하 는 案을 제시했음.</p> <p>0 니코노프 러 하원의 원, 北核억제 위해 朝蘇조약 연장문제 연계 제안</p> <p>- 朝蘇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의 효 력연장문제를 연계 시켜 북한의 핵무 기 개발을 억제할 수 있을 것임.</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7.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지도일꾼협의회 - 시멘트 증산, 함흥지역 화학 공업기지 강화, 신형 발전 설비개발, 단군릉 개건공사 조기 완공 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0 臺灣, 3不政策 사실상 포기 * 高孔廉 대륙위원회 부주임 발표 - 대만 정부는 중국과 통신과 항공 및 선박운행에 있어서 直交流를 허용키로 했음.
7.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0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통신실무자접촉 (판문점 『평화의 집』) - 남북정상회담 기간중 남북간 통신망 가동과 방송중계에 따른 기술적 문제 협의 * 남측 대표 : 柳益鉉, 朴榮煥, 丁龍大, 북측 대표 : 김명호, 한명환, 이영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0 平壤放送,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통신실무자접촉 보도 - 쌍방은 텔레비전 실황중계문제, 북남직통전화 이용문제, 휴대용 위성전화 이용문제 등 구체적인 통신실무적 문제를 협의하고 많은 문제들에서 합의를 보았음. - 일부 합의하지 못한 문제들은 7.13 평양 실무자접촉에서 계속 토의하기로 했음. 0 김형직 탄생 100돌 기념 중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0 스코트 슈나이더 美 평화연구소 연구원, 美·北외무장관회담 개최 가능성 언급 * 日요미우리신문 회견 - 3단계 美·北회담이 진척을 보일 경우 8월이나 9월경 양국 외무장관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음. 0 카터 前 美대통령, 김일성, 日·北 정상회담 희망 언급 * 기자회견 - 김일성 주석이 日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기를 희망했음.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7. 7		<p>연구토론회 (인민문화궁전) * 참석: 박성철, 양형섭, 김기남, 강석승</p> <p>0 北韓·UNDP, 농업생산 증대와 농업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협조계획서 합의</p>	<p>0 南北에멘, 무력 재 통일</p> <p>- 北에멘군은 5.4 내 전발발 2개월만에 남에멘 수도 아덴 港 점령</p>
7. 8	<p>0 南北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경호실무자접촉 (판문점 『통일각』)</p> <p>* 남측 대표 : 김광주, 정한유, 정해창 북측 대표 : 최 춘, 리재웅, 리금철</p> <p>0 李榮德 국무총리, 정상회담에서 남북 공통의 統一目標 합의 희망</p> <p>* 한국발전연구원 조찬 강 연회</p> <p>- 정상회담에서 공통의 통일목표를 세우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지길 희망함.</p> <p>- 북한이 통일전선전략을 포기한다면 대폭적인 경제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전달해야 함.</p>	<p>0 金日成 사망</p> <p>* 7.9字 参照</p>	<p>0 美·北韓 3단계 고 위급회담 (제네바)</p> <p>* 강석주 북한 외교 부 부부장, 갈루치 美국무차관보 참석</p> <p>- 美國측은 북한이 추가적인 재처리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核활동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 경수로 전환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 제시</p> <p>- 북한측은 최단시일 내 경수로 전환 지원과 무력불사용·불위협에 대한 법적 보장 등 기존 주장 되풀이</p>

일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7. 9	<p>0 金泳三 대통령 주재 國家 安全保障會議 개최 * 金日成 사망에 따른 대책 논의</p> <p>< 金泳三 대통령 발언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어떠한 사태발생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음. - 보름후 南北頂上이 만나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장래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아쉽게 됨. <p>0 政府, 全공무원 비상대비령 및 全軍 비상경계령 하달</p>	<p>0 북한, 金日成 사망 발표 * 당중앙위·당중앙군사위·국방위·중앙인민위·정무원 공동명의 (12:00, 中·平放)</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金日成이 '94.7.8. 2시에 급병으로 서거하였다는 것을 가장 비통한 심정으로 알림. - 오늘 우리 혁명의 진두에는 주체혁명위업의 위대한 계승자이며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탁월한 영도자이며 우리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인 金正日이 서 있음. - 우리 당의 세련된 영도는 김일성이 개척하고 이끌어 온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 완성하여 나갈 수 있는 확고한 담보로 됨. <p>< 국가장의위원회 구성(7.8)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일, 오진우, 강성산, 이종욱, 박성철, 김영주, 김병식, 김영남, 최 광, 계응태, 전병호, 한성룡, 서운석, 김철만, 최태복, 최영림, 홍성남, 강희원, 양형섭, 홍석형, 연형목, 이선실, 김철수, 김기남, 김국태, 황장엽, 김중린, 서관희, 김용순 外 (273명) <p>< 국가장의위원회 공고(7.8) ></p>	<p>0 美·北, 3단계 고위급회담 연기 발표</p> <p>0 클린턴 美대통령, 金日成 사망에 애도 표시 * 특별성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시민을 대표해서 진정한 哀悼의 뜻을 표함. - 美·北韓간 대화 재개를 가능케한 金주석의 지도력에 감사를 표하며 이러한 대화가 일정한 시간이 지난뒤 지속되기를 희망함 <p>0 鄧小平, 北韓노동당 중앙위에 弔電</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와 조선 정부와 전체 조선 인민들에게 가장 심심한 哀悼의 뜻을 표하는 바임. <p>0 江澤民·李鵬·喬石, 북한에 弔電</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조선 인민들이 金日成이 남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7.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金日成 영구를 금수산의사당에 안치함. - '94.7.8~7.16 까지를 哀悼期間으로 정하며 '94.7.11~7.16 사이에 조객들을 맞이함. - 추도대회를 '94.7.17 平壤에서 거행함. - 外國의 조의대표단은 받지 않기로 함. < 金日成의 질병과 사망 원인에 대한 의학적 결론 > - 겹쌓이는 정신적인 과로로 하여 '94.7.7 심한 심근경색이 발생하고 심장쇼크가 합병·증악되어 사망하였음. ○ 中·平放, 金正日을 '당과 혁명의 수위에 모실 것' 주장 - 金日成의 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인 金正日을 우리 黨과 革命의 수위에 드높이 모시고 그의 현명한 영도따라 힘차게 싸워 나갈 것임. ○ 『朝總聯』 중앙상임위, 金日成 추모위원회 구성 및 조의대표단 파견 결정 	<p>긴 뜻을 계승하고 金正日을 수반으로 하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의 두리에 굳게 뭉쳐 자기 조국을 건설하고 조선반도의 자주적인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 계속 전진할 것을 확신함.</p> <p>○ IAEA, 北 체류 사찰단원 2名 안전조치 활동 계속수행 확인</p>

■ 7 월

일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7.10			<p>0 갈루치 美 국무차관 보,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 弔意 방문</p> <p>0 크리스토퍼 美 국무장관, 北 후계자와 대화 용의 표명 * 로이터통신 회견</p> <p>- 북한이 핵개발의혹을 해소한다면 美 國은 김일성의 후계자와 만날 용의가 있음.</p> <p>0 서방 선진 7개국 (G7), 北核 투명성 보장 촉구 聲明 * G7 정상회담 의장 성명 (나폴리)</p> <p>- 非核의무의 완전하고도 무조건적인 준수를 통한 核프로그램의 완전한 투명성 보장 요구</p>
7.11	<p>0 李榮德 국무총리, 남북정상회담 합의 유효 언급 * 국회 행정경제위</p> <p>- 金日成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南北이 이미 합의한 남북정상회담 원칙은 유효함.</p>	<p>0 최고인민회의 통일정책위원장 김용순, 남북정상회담 연기 통보 對南書翰</p> <p>- 우리측의 유고로 예정된 북남 최고위급회담을 연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음을 위임에 의하여 通知하는 바임.</p>	<p>0 클린턴 美대통령, 南北頂上會談 조속 재개 희망</p> <p>- 무기연기된 남북정상회담이 가능한 조속한 시일내에 열리기를 희망함.</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7.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상황과 여건이 조성되면 양측은 頂上會談 개최문제를 협의할 수 있을 것임. ○ 李洪九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김일성에 弔意 표시 불고려 언급 * 국회 외무통일위 - 북한에 조문단을 파견하거나 조의를 표명하는 것은 일체 고려하지 않고 있음. - 정부는 현재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북한의 권력을 계승한 金正日 체제가 안정되기를 바라 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신문, 金正日體制下 기존 정책노선 유지 시사 (社說) - 金日成이 이룩한 주체의 혁명 전통과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옹호 고수하며 김일성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해 나갈 것임. - 金正日을 높이 받들고 두리에 달결하는 것이 김일성의 위업을 계승·완성해 나가는 참된 길임. - 우리 式 사회주의를 튼튼히 지키고 빛내여 나가는 것은 김일성의 위업을 빛나게 계승해 나가기 위한 근본요구임. ○ 黨·政 간부들, 金日成 영전에 弔意 표시 * 참가 : 김정일 오진우 강성산 이종옥 박성철 김영주 김병식 김영남 최 광 계응태 전병호 한성룡 서운석 김철만 최태복 양형섭 홍석형 연형목 김기남 김국태 김중린 서관희 김용순 김 환 김복신 김창주 김윤혁 장 철 윤기복 박남기 전문섭 유미영 한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江澤民 중국 주석, 駐中 북한대사관 弔意 방문 ○ 錢其琛 中외교부장, 北, 김일성 대화 노선 답습 전망 * 불가리아 외무장관 과 회담시 - 북한은 金日成의 생전 정책에 따라 평화적인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믿음. ○ 엘친 러 대통령, 對北 무기부품 공급 중단 계속시행 언급 * G7 정상회담 記者 會見 ○ 그레그 前駐韓 美대사, 김정일 과도기 지도자 가능성 언급 * 日교도통신 회견 - 金正日이 권력기반을 공고히 할 수도 있으나 과도기적 지도자일 가능성도 있으며, 빠른 시일 안에 내분이 일어날 수 있음.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7.11		<p>0 平壤放送, 갈루치 美 國 무차관 보의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 弔意 방문 보도</p> <p>- 갈루치는 “金正日이 金日成의 위업의 계승자로서 그의 노선을 변함없이 계승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다” 라고 말했다.</p> <p>- 갈루치는 “미국 정부의 이름으로 애도의 뜻을 표시한다. 이러한 시각에는 말로서는 다 표현할 수 없다” 고 조의록에 썼음.</p> <p>0 中央放送, 金正日을 ‘당과 인민의 위대한 영도자’ 호칭</p>	
7.12	<p>0 李榮德 국무총리, 南北 대화국면 지속 언급</p> <p>* 국회 본회의 보고</p> <p>- 북한은 金正日에게 권력 승계가 이루어지면 적어도 당분간은 기존 정책노선을 유지하는 가운데 김정일체제의 조기 안정과 강화에 역점을 둔 대내외 정책을 펴나갈 것으로 봄</p> <p>- 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국면은 일시적인 우여곡절이 있으나 持續될 가능성이</p>	<p>0 美·北韓 3단계회담 북한대표단, 평양 귀환</p> <p>0 『朝總聯』조의대표단, 평양 도착</p> <p>* 단장: 『朝總聯』중앙상임위원장 한덕수</p> <p>0 平壤放送, 金正日 黨·政·軍 완전장악 시사</p> <p>- 위대한 수령님의 유일한 후계자이신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를 黨과 國家, 革命武力의 최고 수위에 높이 모시게 됐음.</p>	<p>0 무라야마 日 총리, 사회당 대표 자격으로 북한에 弔電</p> <p>- 일본 사회당을 대표하여 조선노동당과 인민들에게 애도의 뜻을 표함.</p> <p>0 페리 美 國 방장관, 한반도 전쟁억제가 중요 정책목표라고 언급</p> <p>* 美 상원 세출위 국방소위 증언</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7.12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자 동지의 영도를 높이 받들어 주체혁명위업의 완성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전진할 것임. 0 李仁模, 김일성 영구에 弔意 표시 	
7.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0 黄秉泰 駐中대사, 北·中 국익우선 관계 전환 전망 - 金日成 사망을 계기로 平壤·北京 관계는 종전의 혁명 1세대간의 끈끈한 관계에서 벗어나 국익을 앞세운 관계로 전환될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0 平壤放送, 김정일에 '위대한 태양' 호칭 - 우리 인민은 金正日이야말로 우리 인민의 '위대한 태양'이며 우리 운명의 전체이고 모든 승리의 기치라는 것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있음 0 金正日, 인민군 장병들과 함께 김일성 영구에 哀悼 표시 0 朴普熙 세계일보 사장, 金日成 조문차 訪北 (7.13~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0 엘친 러 대통령, 북한에 弔電 0 李鵬 中國 국무원 총리, 駐中북한대사관 방문 조의 표시 0 金正日, 한국상표 북한내 유통 허용지시說 * 홍콩소식통 - 金正日是 6월말 경제일꾼들에게 南韓 상품에 일본상표를 부착하거나 상표없이 들여올 필요가 없다고 지시했음. 0 러 콤포몰스카야 프라우다紙, 北核의혹 관련 順川·白山 농축우라늄 검증 필요 주장 * 러 핵전문가 발언 인용

일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7.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핵개발의혹 관련, 寧邊 미신고 핵시설외에 順川과 白山에서의 농축우라늄 추출여부도 검증돼야 할 것임.
7.14	<p>0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개최</p> <p>* 김일성 사망 후 북한동향 및 관련국 반향 보고청취</p> <p>< 회의후 李洪九 부총리 당부말씀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입장은 '頂上會談 개최 원칙 유효' 뿐이며, 나머지 節次問題는 북한의 사태진전을 보아가며 의연하게 풀어나간다는 입장임. 	<p>0 『祖平統』대변인, 남한 조문단 訪北 환영 談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조선의 각당각파 인사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이 애도의 뜻을 표하고 조문을 보내오며 平壤에 조문단을 파견하려 하는데 대하여 사의를 표함. - 남조선의 조문단이나 조문객들이 平壤에 체류하는 기간 그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하며 모든 편의를 제공할 것임. <p>0 金正日, 조의 방문중인 해외동포들 接見</p> <p>* 한덕수 강 일 최흥희 문명자 송두울 박경선 양영동 최기환 홍동근 전충림 김진경 등</p> <p>0 駐UN 북한대표부, 미국에 3단계 회담 日程 협의를 위한 接觸 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측이 UN대표부를 통해 전화로 제네바회담 재개 일정을 잡기위해 다음주에 만날 것을 요구 	<p>0 北, 제네바 3단계 회담시 핵연료 재장착 입장 표명說</p> <p>* 워싱턴 외교소식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석주는 7.8 제네바 회담에서 핵문제와 관계개선 문제가 조기에 일괄타결되지 않으면 5MW원자로에 核연료를 재장착하고 인출된 폐연료봉을 再處理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음. <p>0 日정부, 해외공관에 김일성 弔問 금지 지시</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7.15	<p>0 韓·美정상, 北정세 관련 전화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상황변화에 대해 긴밀 협조, 대처키로 합의 <p>0 李洪九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金正日체제 전제로 對北정책 추진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크리스찬 아카데미 주최 강연 - 정부는 金日成 사후의 김일체제가 안정기조를 유지해나갈 것이라는 전제로 對北관련정책을 수립하고 있음. - 金正日체제는 김일성의 기본정책을 계승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같은 구도에서 북한은 南北정상회담도 계속 추진할 것으로 봄. 	<p>0 북한, 金日成 장례식 7.19로 연기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장의위원회 공보 - 국가장의위원회는 인민들의 절절한 심정과 요구를 반영하여 추도행사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객들을 7.18 까지 계속 맞이함. 2. 영결식을 7.19 平壤에서 거행함. 3. 추도대회는 7.20 진행함. <p>0 平壤放送, 남한 특별경계령 관련 김대통령 거명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11字『韓民戰』중앙위 談話 인용 - 南北정상회담을 앞두고 뜻하지 않게 생긴 불상사에 슬픔을 같이 나누지 못할망정 정치적으로 악용하여 동족을 자극하는 행위는 상식 이하의 무례한 처사이며 초보적인 예의범절도 모르는 비인간적 행위임. - 온겨레는 지금 金 〇〇 일당의 반인륜적이고 비도덕적인 처사에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음. 	<p>0 美, 해외공관에 김일성 조문금지 지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워싱턴 외교소식통 - 美정부는 김일성 사망과 관련, 조의를 표하거나 조문하는 일은 금지시킨다는 훈령을 재외공관에 하달 <p>0 美상원, 對북한 경제지원 금지 내용의 대외활동 세출예산법 수정案 의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核 비보 유 △核계획 중단 △ 플루토늄 수출 금지 등 3개사항을 클린턴 대통령이 확인, 의회에 보고할 때까지 어떠한 基金도 북한에 제공 금지 <p>0 日, 北韓 난민 대비 해상경계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메이 日 운수상 기자회견 - 해상보안청이 7.9 부터 난민 발생을 상정해 경계태세를 취하고 있음.

■ 7 월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7.15			0 샤이나 CNN방송 편 집국장, 카터 訪北 金正日 허가 발언 * 日산케이신문 회견 - 카터 前 美대통령 의 북한 방문이나 美 CNN의 평양으로 부터의 생방송 등 은 모두 金正日의 허가로 이루어진 것임.
7.17		0 『汎民聯』북측본부 대변인, 남측본부 조문단 訪北 무산 관 련 비난 談話 0 金正日, 항일혁명투쟁 연고자 및 해외동포 접견 * 손원태, 서순옥 가족, 이재덕 가족, 허종만, 임민식 등	0 러 TV, 北韓 전시 비상식량 대량 방출 보도 * 러 오스탄키노 TV - 북한은 장례기간 조문객들의 식사문 제를 해결하기 위 해 戰時用으로 비 축해 두었던 쌀 등 을 대량으로 방출 하고 있음.
7.18	0 李榮德 국무총리, 김일성 조문논쟁 관련 政府 입장 발표 * 국무회의 발언 - 金日成은 민족분단의 고 착과 동족상잔의 전쟁을 비롯한 불행한 사건들의 책임자라는 역사적 평가	0 『韓民戰』평양대표부 대표 이 정상, 김일성 조문 관련 對南 비난 談話	0 무라야마 日총리, 北核 국제공조체제 지속 표명 * 국회 시정연설 - 日정부는 金日成 사망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악 영향이 미치지 않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7.18	<p>가 이미 내려져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일부 재야 및 운동권학생과 사회 一角에서 弔電 발송, 조문단 파견 논의 등의 움직임이 있는 것은 무분별한 행동으로 매우 遺憾스러운 일임. - 정부는 實定法을 위반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엄단할 것임. - 정부는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대화를 통해 진전시켜나간다는 政策基調는 일관성있게 견지할 것이며, 南北頂上會談 개최의 원칙은 유효하다는 자세에 변함이 없음. <p>○ 金泳三 대통령, 北韓 주민 인권에 UN 등 국제적 관심 傾注 희망 * UN 인권고등판무관 접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韓 벌목공의 인권과 북한 주민의 인권에 관해 세계와 UN은 너무 관대함 <p>○ 金泳三 대통령, 극렬 좌경 학생 不관용 언급 * 대학총장 초청 오찬</p>		<p>기를 바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핵개발문제가 韓·美·日 3국의 연대아래 對話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음. <p>○ 中, 對北 경제지원 방침 결정 * 日교도통신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中國지도부는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서는 金正日 후계 체제를 지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북한에 대한 經濟支援을 강화하기로 방침을 정했음. - 중국은 북한 새 지도부와와의 관계강화를 위해 金正日을 올가을 중국을 방문하도록 초청할 방침임. <p>○ 을시 美CIA국장, 北韓 핵연료봉 재처리엔 核彈 5개분 플루토늄 보유 언급 * 국제전략문제연구</p>

■ 7 월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7.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차별 폭력과 남아빠진 공산주의를 맹종하는 학생들에게 까지 관용으로 대해 줄 수는 없음. ○ 韓昇洲 외무부장관, 『亞·太인권기구』 창설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차 UN 亞·太지역 인권워크샵 - 亞·太지역 차원에서 인권문제를 정례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인권회의등 人權포럼 설치가 필요함. ○ 徐東權 前안기부장, 남북 정상회담 '92년 성사직전 무산 언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합통신 회견 - 6共和國 당시 북한이 고려연방제등 조건을 철회, 회담이 성사직전에 이른 적이 있었으나 북한이 4.15 平壤 개최를 주장, 盧泰愚 대통령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 北韓주민 조명철(35) 귀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前 정무원 건설부장, 現 당 중앙위 후보위원 겸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조명철의 子로 김일성大 경제학부 상급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CSIS) 주최 세미나 - 북한이 폐연료봉을 재처리할 경우 5개 정도의 핵무기를 만들수 있는 충분한 플루토늄을 추가로 보유하게 될 것임. ○ 美國방부, 駐韓美軍 병력 3만6천921명으로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31 現在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7.19	<p>0 李洪九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綜合的 통일정책' 추진 보고</p> <p>* 대통령 주재 국정평가보고회</p> <p>- 金日成 사망후 남북관계 새 국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종합적 통일정책'을 수립·추진하겠음.</p> <p>- 남북간에 합의한 頂上회담 개최 원칙을 견지하고 새로운 상황에 맞는 절차 문제를 협의하며, 南北공동위원회 재가동을 추진하겠음.</p> <p>※ 金泳三 대통령 지시사항</p> <p>-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주변국가와의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할 것임.</p>	<p>0 金日成 영결식 (12:00~, 금수산의사당)</p> <p>* 발인식 참석 명단 : 金正日 오진우 강성산 이종욱 박성철 김병식 김영주 김영남 최 광 계웅태 전병호 한성룡 서윤석 김성애 김철만 최영림 홍성남 양형섭 홍석형 연형목 김기남 김국태 황장엽 김중린 서관희 김용순 김 환 김복신 김창주 김운혁 장 철 공진태 윤기복 박남기 전문섭 유미영 한덕수</p> <p>- 영결식은 金日成 영구 의장대 사열 → 평양 시내 주요거리 행진 → 금수산의사당 재안치 순으로 진행</p> <p>0 『韓民戰』, 국무총리의 정부 입장 발표 관련 비난 聲明</p> <p>- 우리는 이러한 도발적 행위가 南北關係를 파국적 사태로 몰아갈 새로운 위험성을 배태하고 있다고 인정함.</p> <p>- 北을 자극하다 못해 北을 정면으로 걸고든 것은 남북관계를 대결의 원점으로 돌려세우고 朝·美회담에 새로운 계동을 걸기위한 고의적인 도발임.</p>	<p>0 IAEA 대변인, 金日成 사망후 사찰활동 정상 언급</p> <p>- 북한은 金日成사망 후 7.19까지 寧邊에 남아있는 IAEA 사찰원들의 활동에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않았음.</p> <p>0 ASEAN 6개국, 『동남아 비핵화지대』'95년까지 창설 합의</p> <p>* 태국 외무부 발표</p>

일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7.19		0 金正日, 『朝總聯』 조의대표 단 및 재일동포 조객들을 위해 위로연 마련 (목란관)	
7.20	0 외무부, 6.25 남침 사실 입증 러시아 외무부 對外 정책문서 공개 * 216件	0 金日成 중앙추도대회 (10:00~, 김일성광장) * 참석 : 金正日, 당·국가 지도간부, 국가장외위 위원, 한덕수, 이인모 < 黨정치국위원 겸 부총리 김영남 추도사 > * 金正日 위임 -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확고히 계승해 나갈 수 있는 영도의 후계문제를 빛나게 해결한 것은 金日成이 우리 혁명의 미래를 위하여 이룩한 가장 특출한 공적임. -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이 다지는 맹세는 金正日을 중심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단결하여 主體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맹세뿐임. - 앞으로도 金日成의 革命思想을 절대적으로 신봉하고 우리 당과 혁명의 유일한 사상으로 틀어쥐고 나가며 金日成이 마련해준 白頭의 혁명전통을 만대에 길이 빛내어 나가야 하겠음.	0 갈루치 美국무차관보, 北核 국제공조 협의차 來韓 * 韓·日·中·러 등 4國 순방 예정 0 로드 美국무차관보, 3단계회담시 북한에 남북대화 개최 촉구 방침 - 미국은 제네바에서 속개될 美·北회담에서 북한에 南北對話를 가질 것을 촉구할 것임. - 남북대화에서 논의될 의제가 美·北회담에서는 다루이지 않을 것임. 0 서덜랜드 GATT총장, '남북교역은 내부거래' 간주 언급 - 현 GATT체제에는 한국만 가입돼 있기때문에 南北韓의 교역은 내부거래로 간주될수 있을것임.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7.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의 기치아래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이룩하여야 함 < 조선인민군 차수 김광진 추도사 > - 金正日의 두리에 뭉친 혁명대오의 혼연일체를 더욱 반석같이 다지며 그어떤 천지풍파속에서도 장병들 모두가 金正日을 결사옹위하는 총폭탄이 되고 성세가 될 것임. - 우리 인민군장병들은 金日成의 유훈을 지켜 金正日을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수위로 높이받들어 모시고 조국통일을 90年代에 반드시 성취하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 나가겠다는 것을 엄숙히 맹세함. ○ 金正日, 이탈리아 국제관계연구소 총서기 및 前 중국 흑룡강성 省長 부부 接見 ○ 金正日, 범민련 해외본부조의 대표단 등 해외동포 위로연 마련(목란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日요미우리신문, 平壤 시민 金正日 배지 부착 보도 * 平壤주재 외국상사원 발언인용 - 평양시내 일부에서는 金日成 배지 대신 金正日 배지를 가슴에 단 시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보도 ○ 日·캐나다, 북한에 美·北회담 재개 및 남북정상회담 개최 촉구 *외무장관회담(도쿄) - 북한이 핵개발 의혹을 일소하고 美國과 대화를 재개할 것과 南北정상회담을 개최하기를 바람.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7. 21	<p>0 政府, '94 남북인간띠잇기 대회 관련 立場 발표</p> <p>* 통일원·내무부·문화체육부 공동명의 발표문</p> <p>- 금번에 개최코자 하는 남북인간띠잇기대회는 남북관계 개선 및 통일여건 조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함.</p> <p>-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인간띠잇기행사를 적극 자제하여 줄 것을 당부함.</p> <p>- 정부는 국가안보, 공공질서 및 남북관계 개선에 위해롭지 않는 한 민간의 자율적인 통일운동을 보장해 나간다는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음.</p> <p>0 李洪九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 민족공동체 건설과 민족복리 증진 ' 차원 對北 경수로지원 접근 언급</p> <p>* 갈루치 美 국무차관보 면담시</p> <p>- 북한의 경수로 도입 지원 문제와 관련, 민족공동체 건설과 민족복리의 증진을 고려하는 장기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원칙을 토대로 韓·美간</p>		<p>0 美·北韓 실무접촉 (뉴욕)</p> <p>* 3단계 고위급회담 8.5 제네바 재개 합의</p> <p>0 그레그 前駐韓 美대사, 對北 우호정책 촉구</p> <p>* 駐美한국대사관 공보원 주최 세미나</p> <p>- 한반도는 강경책을 사용할 장소가 아니며 자칫 잘못된 정책을 추진하면 재래식 전쟁을 초래할 수 있음.</p> <p>- 대북한 경제지원을 통해 남북한간 경제적 격차를 줄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7.21	<p>에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임.</p> <p>○ 韓·美, 북한핵문제 관련 實務協議 개최</p> <p>* 金三勳 핵전담대사, 갈루치 美국무차관보 참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핵연료 재장전 금지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금지 △IAEA 안전조치 계속성유지 등 核활동 동결은 앞으로 美·北 대화의 지속을 위한 필수 조건임을 재확인 -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北韓의 △ NPT 완전복귀 △IAEA사찰의무의 완전한 이행 △비핵화 공동선언의 실천 등이 확보되어야 하고, 과거 核활동의 진상규명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 - 북한측이 핵문제 해결에 긍정적 태도를 보일 경우 경수로 전환 지원문제, 美·北 관계개선 문제 등 북한측이 제기한 제반 정치·안보·경제적 요구사항과 관심사항에 대해 협의한다는 입장 재확인 		

■ 7 월

일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7.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으로도 확고한 韓·美 공조체제를 계속 유지해 나가기로 합의 ○ 정부, 美 戰域미사일방위구상(TMD)의 연구단계 참여 통보 * 韓·美 국방차관 실무 협의시 - 정부는 戰域미사일방위구상(TMD) 연구에 부분적으로 참여하되 본격 가입은 상당기간 유보한다는 입장을 미국측에 전달 		
7.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개최 * 경수로 지원문제 등 美·北 3단계회담 예상의제들의 토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교부 대변인, 3단계 美·北 회담 8.5 재개 발표 - 7.21 朝·美뉴욕실무접촉에서 쌍방은 제3단계 朝·美회담을 8.5 제네바에서 재개하기로 합의했음. ○ 北韓, '중앙인민위' 명의로 콜롬비아 대통령에게 독립절 축하 電文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中, 북한에 '6대정책' 제시說 * 홍콩『信報』紙 보도 - 中國은 7.9 비밀리에 대표단을 북한에 보내 △김일성 遺志 계승 지지 △한반도 비핵화와 안정유지 희망 △모든 군사도발반대 △경제개혁 추진 지지 △당對당 우의 지속△中·朝 우호 조약 수정 등 '6대정책' 을 제시했다고 보도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7.22			<p>0 고노 日외상, 북한 경수로 지원 용의 표명 * 갈루치 美 국무차 관보 면담시</p> <p>- 북한이 IAEA의 사찰을 완벽히 수용할 경우 일본 정부가 경수로 전환을 위한 지원에 나설 의향이 있음.</p>
7.23	<p>0 韓·日 정상회담 (서울)</p> <p>- 현재·미래는 물론 과거 核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韓半島 비핵화 공동선언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p> <p>- 대화를 통한 북한 핵문제의 해결과 韓·美·日 3국의 긴밀한 공조체제 중요성 재확인</p> <p>- 日·北수교 교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합의</p> <p>0 金泳三 대통령, 南北 당사자간 대화 중요성 강조 * 韓·日정상회담 후 기자회견</p>	<p>0 『汎民聯』 북측본부 중앙위, 金日成 조문 단속 관련 대남 비난 聲明</p> <p>- 김일성 사망과 관련, 남조선 정부가 특별경계령, 범민련 남측본부인사 구속 등 反北 대결책동을 한것은 최고위급 회담정신에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도발행위임.</p> <p>0 朴普熙 세계일보 사장, 평양 출발 기자회견 * 7.24 중앙방송 보도</p> <p>- 회장은 訪北이 정치이전의 인도주의적인 소행이고 사상과 이념위에 있는 민족적 차원에서 행해진 행동이고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의 교리에도 부합되는 신성한 일로서 사법처리의 대상이 될수 없다고 답</p>	<p>0 朴普熙 세계일보 사장, 訪北(7.13~22) 후 記者會見 (北京)</p> <p>- 金正日是 '남북한 간에 합의된 南北 정상회담은 여전히 유효하며 아버지의 유업을 받들어 잘 해나갈 것' 이라고 밝혔음.</p> <p>- 金正日是 또한 생전에 訪美를 희망했던 김일성의 뜻에 따라 자신도 美國을 訪問, 클린턴 대통령과 만나고 싶다는 희망을 나타냈음.</p>

일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7.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입장은 어디까지나 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것이 일관된 정책이며, 당사자 원칙이 중요함. - 북한이 결국 남북정상회담에 호응해 오리라는 기대를 갖고 있음. - 핵문제의 해결과 남북의 화해와 협력, 동북아의 평화에 도움이 된다는 전제아래 경수로전환을 지원할 용의가 있음. 	<p>하였음.</p>	
7.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韓昇洲 외무부장관, 中·러 외무장관과 연쇄 會談 * 아세안 확대외무장관회담 (PMC) 및 아세안지역 안보 포럼 (ARF) 참가 (방콕) - 김일성 사후의 한반도 정세 협의 및 北韓 핵문제 해결에 협조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어 美 副統領, 金正日의 訪美 희망 관련 언급 * 美 NBC-TV 대담 - 金正일이 美 대통령과 만나기를 희망한다는 제안이 가까운 장래에 이루어질것 같지않음
7.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李榮德 국무총리, 주사파 척결 지시 -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학생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이를 척결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라고 내무부와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교부 대변인, 남북관계 개선 선결 주장은 핵문제 해결에 '결정적 장애가 될 것' 이라고 경고 (記者會見) - 남조선 당국자들이 제3단계 朝·美회담에서 북남관계 개선을 朝·美관계 개선의 선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日, 김일성 사후 북한정세 관련 방위계획 수정 * 마이니치신문 보도 - 김일성 사망으로 북한정세가 유동적이라고 판단, 육·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7.25	<p>무부에 지시</p> <p>0 李洪九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박보희 訪北 관련 사법처리 방침 표명</p> <p>- 사전 법적절차를 밟지 않은데 대해 엄격한 사법처리가 있을 것임.</p> <p>0 韓昇洲 외무부장관, '동북아 多者 안보대화' 제의</p> <p>* 아세안지역 안보포럼(ARF) 연설</p> <p>- 南北韓을 포함, 美·日·中·러 등 한반도 주변 6 개국이 참가하는 '동북아 다자안보대화' 창설을 제의</p>	<p>조건으로 내세워야 한다는 논리를 들고 나오는데 대해 문제시 하지 않을 수 없음.</p> <p>- 제3단계 朝·美회담에서 경수로제공 담보가 확고히 마련되고 朝·美사이에 적대관계 해소, 신뢰조성문제 등이 해결되어 朝·美관계가 실제로 개선되면 北南관계에도 결정적으로 유리한 국면이 조성될 것임.</p> <p>- 핵문제 해결을 위한 朝·美회담에서 북남관계 개선을 朝·美관계개선의 선결조건으로 내세우는 경우 핵문제해결에 결정적인 장애가 조성되리라는 것은 명백함.</p> <p>0 『職總』중앙위, 弔問 관련 남한당국 규탄 聲明</p>	<p>해·공군 자위대가 각각 올해 방위정비계획 수정작업에 착수했음.</p> <p>0 아세안지역 안보포럼(ARF), 남북대화 조기 재개 지지</p> <p>* 의장성명 채택</p> <p>- 국제평화와 안정의 유지를 위해 핵무기 비확산에 유의하면서, 계속적인 美·北협상을 환영하며 남북대화의 조기재개를 지지함</p>
7.26		<p>0 해주방송, 金正日 '총비서 및 국가주석' 추대 주장</p> <p>- 우리는 김정일 동지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고 黨의 혁명적 경제전략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올해를 빛낼 것임.</p>	

일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7.27	<p>0 귀순자 康明道·趙明哲, 북한 核彈 5개 보유 주장 * 기자회견</p> <p>- 북한은 '93년말까지 이미 핵탄두 5개 정도는 생산을 완료했으며 최근에는 장거리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음</p> <p>- 최소한 10개 정도의 핵탄두를 보유한 뒤 공개해 南北 및 對美관계에 이용하려 하고 있음.</p> <p>※ 강명도(36)는 정무원 총리 강성산 사위로 금수산 의사당 경리부 산하 무역회사 부사장 재직중 '94. 5 제3국 경유, 귀순</p>	<p>0 『조국해방전쟁』 승리 41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2·8문화회관) * 참석 : 오진우, 이종옥, 박성철, 김영주, 최 광, 계응태, 강현수, 허종만 外</p> <p>* 당비서 계응태 경축보고</p> <p>0 육·해·공군 청년군인들, 김정일에 '충성의 결의' 모임 (전승기념탑) * 참석 : 최 광, 김봉률, 김광진, 각 군종·병종 사령관</p> <p>0 『사로청』 중앙위, 弔問문제 관련 對南 비난 聲明</p>	<p>0 페리 美 국방장관, 北 핵무기 5개 보유 否認 * 美 PBS-TV 대담</p> <p>- 북한이 핵무기 5개를 보유한 것으로 믿지 않으며, 보유한 것으로 보이는 핵무기가 1~2개라는 판단에 큰 신뢰를 갖고 있음.</p> <p>0 美 공화당 중진들, 對북한 강경 대처 촉구 * 美 공화당 전국위원회 주최 외교정책포럼</p> <p>- 키신저, 베이커 前 국무장관, 체니 前 국방장관 등은 클린턴 행정부에 북한 핵문제에 대해 강경 대처할 것을 촉구</p>
7.28	<p>0 韓·日, 한반도 정세 관련 실무협의 * 崔東鎭 외무부 제1차관보 후쿠다 日외무성 심의관 참석 (도쿄)</p> <p>- 북한의 核과거를 포함해</p>	<p>0 平壤放送, 귀순 강명도·조명철 기자회견 관련 '정치적 연극' 이라고 비난</p> <p>0 黨정치국 후보위원 겸 정무원 부총리 강희원 死亡</p>	<p>0 美 백악관 대변인, 北 韓 핵탄 5개 보유 부인</p> <p>- 미국이 보유한 정보와 일치하지 않으며, 현 단계에서</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7.28	<p>핵투명성이 규명되어야 하며, 韓半島 비핵화 공동선언도 실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데 합의</p> <p>0 北韓 주민 김동훈, 인천 밀입국 귀순 * 금강산무역회사 과장</p> <p>0 國防部, 북한 플루토늄 15 kg 보유 추정 * 정래 북한동향 브리핑</p>	<p>* 국가장의위원회 구성 : 강성산, 김영남, 한성룡, 최영림, 홍성남, 양형섭, 홍석형 外</p> <p>0 『韓民戰』 중앙위, 주사파·한 총련 단속 규탄 聲明</p>	<p>확실히 평가할 수 없는 내용임.</p> <p>- 북한이 1~2개의 핵무기를 만들기에 충분한 핵물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나 핵무기를 보유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음.</p> <p>0 데무린 러 외무부 副대변인, 北韓 핵탄 보유 공식 否認</p> <p>-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따르면 北韓에는 핵무기가 없음.</p> <p>0 크리스토퍼 美국무 장관, 核동결 안되면 美·北 회담 중단 표명 * 美하원 외교위 청문회</p>
7.29	<p>0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개최 * 美·北 3단계 회담 재개 관련 정부입장 재확인 및 韓·美 공조방안 논의</p>	<p>0 노동신문, 金泳三 대통령의 조의표시 엄단 지시 비난 論評</p> <p>- 남조선 통치배들의 반공 히스테리발작으로 모처럼 화해와 대화에로 흐르던 朝鮮半島 정세는 또다시 대결국면으로 되</p>	<p>0 中, 對북한 긴급 식량 원조 * 日 마이니치신문 보도</p> <p>- 중국은 金日成 추도대회가 있었던</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7. 29		<p>돌아서고 있음.</p> <p>- 이것은 남조선 위정자들에게 우리와 화해할 생각도 없고 대화를 통해 통일문제를 해결 할 의지도 전혀없다는 것을 말해줌.</p> <p>0 『祖平統』서기국, 남한 당국의 박보희 사법처리 방침 규탄 報道</p> <p>0 黨·政 간부들, 강희원 빈소 조의방문</p> <p>* 참가 : 오진우 강성산 이종욱 박성철 김영주 김병식 김영남 최 광 계응태 전병호 한성룡 김철만 최영림 홍성남 양형섭 홍석형 김기남 김국태 황장엽 김중린 서관희 김용순 外</p>	<p>7.20전후 밀가루· 소금·쌀 등 식료 품을 北韓에 긴급 원조했음.</p> <p>0 IAEA, 북한 核彈 5 개 보유 부인</p> <p>- 지금까지 수집된 정보로 볼 때 康씨의 주장은 신빙성 이 없음.</p> <p>0 北, 호주에 『아세 안 지역안보포럼』 참여 지원 요청 * 더 오스트레일리안 紙 보도</p> <p>- 北韓은 방콕주재 대사관을 통해 호 주 정부에 北韓이 『아세안지역안보포 럼』(ARF)에 참여 하도록 도와줄 것 을 요청했음.</p>
7. 30		<p>0 『祖平統』, 남한 당국의 반공 반북대결소동 규탄 聲明</p> <p>- 김○○은 대화상대방에 발생 한 유고를 불순한 정치적 목 족에 이용하는 反민족적 역적 행위를 자행하면서 군사적 도 발로 대응해 나섰음.</p>	<p>0 국제사면위, 北韓 정치범 수용소 실태 및 55명 명단 공개 * 기자회견 (서울)</p> <p>- 平壤 근교 정치범 수용소(승호마을) 의 실태와 이곳에</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南關係의 현 대결사태는 바로 여기로부터 발단되었음. - 우리는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이 國家保安法の 희생물로 되고 우리가 이 악법에 의하여 계속 적대시되는 사태를 더이상 용납할 수 없음. <p>○ 강희원 國葬</p> <p>* 참석 : 김영남 한성룡 최영림 홍성남 양형섭 外</p> <p>○ 美CNN-TV 방송사 대표단(단장: 제1부사장 이슨 조던), 북한 방문 (7.30~8.6)</p>	<p>구금되어 있는 정치범 49명을 포함한 55명의 명단을 공개</p> <p>※ 前수도여고 교사 高相文씨 포함</p> <p>○ 非核운동가들, 日本 핵탄 5천개분 플루토늄 보유 주장</p> <p>* 亞太지역 평화세미나 (방콕)</p> <p>- 일본은 현재 4.5~26t의 플루토늄 239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과거 나가사키 투하됐던 것과 같은 크기의 핵폭탄 9백~5천개를 만들수있는 분량임</p>
7.31		<p>○ 조선종교인협의회 대변인, 南北인간띠잇기대회 관련 실무접촉 제의 談話</p> <p>- 얼마전 '94 남북인간띠잇기대회 남측본부는 올해 인간띠잇기대회를 南과 北이 공동으로 개최할데 대한 제안을 해왔음</p> <p>- 우리는 이 제안이 겨레의 통일 의지와 열망을 높이고 민족이 하나임을 과시하며 조국통</p>	

■ 7 월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7.31		<p>일을 앞당기려는 염원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간주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이번 대회와 성과적 실현을 위하여 8.5 오전 10시 관문점 『統一閣』에서 남측 본부 대표들과 마주앉아 공동 개최와 관련한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제의함. <p>※ 南側 제의일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 6 : 남북인간띠잇기대회 발기인대회시 북측에 공동개최 제의 - 5.30 : 김동완 KNCC 총무, 강영섭 조선기독교도연맹 위원장에게 공동개최 제의 (도쿄) - 6.30 : 남측본부, 공동개최 호응 촉구 (기자회견) <p>○ 『祖國戰線』중앙위 의장 염태준, 남한 당국의 朴普熙 사법처리 방침 규탄 談話</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8. 1	<p>0 金泳三 대통령, 拉北 억류자 조속 송환 노력 지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高相文씨 등 拉北 억류자가 조속히 송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 통일원, 외무부 등 내각은 여러 對北 채널과 우방과의 채널을 총동원하고 세계여론에 호소해서 이들이 즉각 송환되도록 최선을 - 우리가 미전향 장기수 이인모 노인을 북한에 송환해준 것과 같은 인도적·인권적 차원에서 남북자 송환문제가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 <p>0 남북인간띠잇기대회본부, 대회 취소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4 남북인간띠잇기대회를 취소하고 대신 8.15 전국 16개 도시에서 '평화통일기원대회'를 개최한다고 발표 <p>0 與野, 拉北인사 조속 송환 촉구 對北聲明</p>	<p>0 조선종교인협의회, 남한 당국의 朴普熙 사법처리 방침 규탄</p> <p>0 金平一, 최근 핀란드 귀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대사관 대변인 확인 	<p>0 北, 核동결 약속 준수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NN방송 平壤發 보도 - 북한 관리들은 核동결 약속을 지킬 것임을 밝혔다. - 북한측이 미국과 계속 대화하길 희망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p>0 무라야마 日총리, 對北 국교정상화 한국과 긴밀 협의하 추진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특파원 회견 - 국교정상화는 한반도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韓國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추진하겠음. - UN이 制裁 결의를 할 경우 평화헌법 범위내에서 UN결의를 존중할 것임. - 경수로 지원은 핵개발의혹문제 해결이 전제되어야 함.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8. 1			<p>0 日, 核彈 제조능력 보유 추진</p> <p>* 마이니치신문, '69년 작성 日외무성 극비문서 폭로</p> <p>- 핵무기 불보유 정책을 견지하되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경제적 기술적 능력은 항상 보유할 수 있도록 추진</p>
8. 2	<p>0 金泳三 대통령, 拉北역류자 송환 노력 재강조</p> <p>* 국무총리 및 관계장관에게 지시</p> <p>- 拉北역류자 송환문제는 인권차원의 문제를 넘어선 생존권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임.</p> <p>- 국제사면위원회와 별도로 UN인권위원회·국제적십자사 등 國際機構를 통해 송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함.</p> <p>0 『韓赤』,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에 拉北 고상문씨 송환 협조 書翰</p> <p>0 朴弘 서강대 총장, 北韓 장학금 받은 교수있다고</p>	<p>0 노동신문, 美·北 3단계회담 재개 관련 경수로 지원 강조</p> <p>- 미국의 적대시정책과 핵위협을 종식시키는 문제를 떠나서 조선반도의 핵문제는 해결될 수 없음.</p> <p>- 현 시점에서 경수로 도입문제에 대한 입장과 태도는 핵문제의 근원적 해결에 관심이 있는가 없는가를 가르는 시금석으로 됨.</p> <p>- 경수로 도입문제와 관련하여 그무슨 '전제' 운운하는 것은 朝·美 회담의 진전을 가로막고 3단계회담에 찬물을 끼얹는 것임.</p> <p>- 美國을 비롯한 유관국들이 진실로 핵문제 해결에 관심이</p>	<p>0 갈루치 美국무차관보, 제네바 美·北 회담에서 '전반적 타결' 모색 언급</p> <p>* 기자회견</p> <p>- 이번 회담의 목표는 북한 핵문제 등에 대한 전반적인 타결임.</p> <p>- 안보문제뿐 아니라 北韓과의 보다 정상적인 관계를 향해 나가는 폭넓은 현안들, 즉 무역·경제에 관한 전반적인 관계개선문제를 다뤄나갈 태세가 돼 있음.</p> <p>- 전반적인 핵문제의</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8. 2	<p>발언 * 日마이니치신문 회견</p>	<p>있다면 마땅히 우리의 경수로 제안을 적극 지지하고 협조해야 할 것임.</p> <p>0 조선인권연구협회, 국제사면위의 북한 정치범 보고서 발표 관련 비난 聲明</p> <p>- 우리 공화국에는 제도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인권문제라는 것이 존재하지도 않으며 그 무슨 수용소라는 것도 없음.</p> <p>- 고상문에 대해 말한다면 남조선에서 더이상 살 수 없어 해외에 나간 기회를 이용하여 공화국의 품에 찾아온 의거자들중의 한 사람임.</p> <p>- 남조선에서 파쇼악법들과 폭압기구들을 즉시 철폐하고 장기수를 비롯한 모든 정치범들과 각계인사들을 당장 석방하여야 함.</p> <p>- 김인서·함세환을 무조건 우리 공화국으로 송환하여야 함</p>	<p>타결에는 경수로 지원문제와 특별사찰 문제 등 IAEA가 제기한 우려들의 해결방안이 포함됨</p> <p>0 北韓, '93년 대외무역 2.4% 감소</p> <p>* 일본무역진흥회 (JETRO) 보고서</p> <p>- 北韓의 '93년도 무역규모는 27억 5천만弗을 기록, 전년에 비해 2.4% 감소</p> <p>· 輸出: 9억8천만弗 (8.5% 감소)</p> <p>· 輸入: 17억7천만弗 (1.4% 증가)</p>
8. 3	<p>0 拉北 고상문씨 가족, UN인권고등판무관에 귀환 호소 긴급탄원서 발송</p>	<p>0 美·北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제네바 도착</p> <p>* 단장: 외교부 부부장 강석주</p> <p>0 李仁模, 만경대 및 대성산 혁명열사능 찾아 '전사의 맹세' 피력</p>	<p>0 美 핵전문가, 對北 경수로 대신 火力 발전소 지원 주장</p> <p>* 길린스키 核규제위원회 前위원, 美WP 紙 기고문</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8.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金正日을 해와 달이 다하도록 높이 받들어 모시는 것이 곧 수령님의 유훈을 지키고 빛내는 길이라는 신념과 의지를 간직하고 代를 이어 충성을 다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골칫거리 국가에 대한 보상은 다른 국가에 잘못된 관념을 심어줄 수 없음. - 만약 北韓이 전력 공급을 명목으로 구형원자로 교체를 바란다면 석탄을 때는 火力발전소가 훨씬 합리적임. 0 고노 日외상, 非核 입장 불변 강조 * '69년도 外무성 核 정책문서 폭로 관련 기자회견 - 核보유는 일본에 아무런 이익도 주지 않는 것이 명백하며, 국민감정을 고려하더라도 핵보유란 생각할 수 없음.
8. 4	<p>0 북한 억류자문제 관련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p> <p style="text-align: center;">〈 회의 결과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高相文씨 등 국제사면위 발표 억류자는 물론, KAL 기, 어선 등을 통해 남북 	<p>0 중앙통신, 金正日이 '당·국가 혁명무력의 수위'에 올랐다고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인민들은 金正日을 조선 노동당·국가 및 혁명무력의 首位에 올려놓음으로써 金日成이 제시한 주체의 혁명적 	<p>0 北, 이란에 『노동 1호』미사일 판매 합의說</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집트 알 아흐암 紙 보도 0 홀럼 美군축국장, 북한 核彈 2개이상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8. 4	<p>된 모든 억류자들의 송환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 경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적십자사·UN인권위 등 국제기구를 통한 노력을 적극 추진하고, 앞으로의 南北對話시 인도적 차원에서 이산가족문제를 포함한 억류자 送還문제를 제기 - 대한적십자사는 인도적 차원에서 억류자들의 생사확인·서신교환 및 궁극적인 송환실현을 위해 모든 노력 경주 - 북한 억류자 송환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統一院 次官을 반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實務對策班을 구성 운영 <p>○ 統一院, 범민족대회 남측 추진본부의 北韓 주민접촉 신청 불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민족대회 남측추진본부의 제5차 범민족대회 개최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8.5 남·북·해외 3者 실무회담』 관련 北韓住民 접촉 신청을 불허 	<p>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할 수 있게 되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韓, 對北전통문 접수 거부 - 남북연락사무소 남측연락관 2명 교체를 통보하는 對北전통문에 대한 접수를 보류 ○ 『朝總聯』중앙상임위, 남한당국의 주사파 단속관련 규탄 聲明 	<p>보유 부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 핵무기 1~2개이상 보유했다는 징조를 어디서도 발견할 수 없었음. - 미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개발에 우려를 갖고 있음.

일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8. 5	<p>0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개최</p> <p>< 공보관 브리핑 내용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北 회담 관련, 의제 문제를 비롯, 회담의 진전·교착 가능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대책을 논의했음. - 北韓 억류자 문제에 대한 정부의 원칙적 입장은 문제의 실질적 해결에 초점을 두고 차분하게 접근하는 것임. - 현단계에서는 UN인권위, UN인권고등판무관실, 국제적십자사 등 國際機構를 통하여 문제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임. - 南北사이에도 이 문제와 관련한 직접적 대화통로가 열리게 되기를 기대하고 노력해 갈 것임. <p>0 許陞 駐제네바 한국대사, UN 인권고등판무관실에 高相文씨 소재파악 및 귀환 협조 요청</p>	<p>0 외교부 대변인, 美·北 3단계 회담 재개 관련 경수로 지원이 관건임을 강조 (記者會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사찰이란 우리의 군사대상을 개방하라는 것으로 우리의 자주권과 국가의 최고이익에 대한 엄중한 침해로 되며, 우리에게 절대로 통할수 없음 - 특별사찰을 주장하는 것은 경수로 등 핵문제 해결의 초점을 다른데로 돌려 회담앞에 난관을 조성하고 회담장을 대결장으로 만들려는 정치적 목적으로부터 출발한 것임. - 이외의 문제들이 아무리 논의된다고 해도 경수로 문제가 낙착되지 않는다면 핵문제 해결에서 근본적인 전진을 이룩할 수 없을 것임. - 경수로 대신 火力발전소 건설 주장은 이번 회담에서 경수로 도입 제안을 무산시키고 회담 자체를 흐지부지 하게 하려는 기도가 깔려 있음. - 남조선 당국자들이 朝·美 대화에 北南對話를 선행시켜야 한다는 거꾸로된 도식까지 내돌리는 것은 회담에 난관을 조성해 보려는 양탈에 지나지 않음. 	<p>0 美·北 3단계고위급 회담 재개 (제네바)</p> <p>0 갈루치 美 국무차관보, 北核 과거문제 해결입장 불변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담후 기자회견 - 北韓 핵문제의 해결에는 반드시 과거문제의 해결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임. 0 솔라즈 前 美하원 亞太소위 위원장, 北核과거 목인 주장 * 美 뉴 리퍼블릭誌 최신호 기고문 - 북한이 1~2개의 핵무기를 보유하는 상황은 전세계 핵질서에 심각한 타격이 되지 않음. - 북한의 과거 核활동을 인정하는 협상안은 韓國이나 日本의 동의를 얻어내기 쉽지 않을 것이나, 결국 협상을 통한 타결방식에 동의할 것임.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8. 5		<p>0 中央放送, 平壤이 고대문화의 중심지였다고 주장</p> <p>- 이번에 처음으로 평양시 강동군 황대부락 앞산에서 5천년 전에 축조된 옛성을 발굴했음</p> <p>- 단군릉에서 10km 밖에 안되는 강동군 신창군 돌갑무덤에서는 16개째분의 사람뼈가 발굴되었음.</p> <p>- 이러한 성과는 반만년의 유구한 우리 민족사의 시원을 해명하는 면에서나, 단군조선의 역사를 정립하는 데서 디딤돌로 되며, 平壤이 고대문화의 발상지였다는 것을 실증해 주는 힘있는 자료로 됨.</p> <p>0 『祖平統』서기국, 공보처의 朴弘 서강대 총장 논문 배포 관련 비난 報道</p> <p>0 ‘현시대와 자주위업의 진로에 관한’ 주제사상 討論會 개최 (8.5~9, 평양) * 참석 : 황장엽, 이지수, 김영걸, 한수길, 김득수</p>	<p>0 美, 북한에 영사급 외교관계 수립 제의 방침</p> <p>* 美 NYT紙, 美고위 관리 인용 보도</p> <p>- 제네바 美·北회담에서 북한이 핵국가 되는 것을 포기하는 대가로 영사급 외교관계수립을 제의할 것임.</p> <p>0 러 일간지, 북한, 국가차원서 마약 밀매 보도 * 콤포스몰스카야 프라우다紙</p> <p>- 러시아 정보기관은 5월 블라디보스톡에서 北韓人 2명에 의한 헤로인 밀수 사건을 수사한 결과 마약밀매를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p>
8. 6		<p>0 노동신문, 金日成 혁명사상로의 무장 강조 (社說)</p> <p>- 우리 黨의 사상이론을 심장같이 새겨갈 때 우리는 위대한</p>	<p>0 北, 核彈 3~4개 분량 플루토늄 22~27kg 추출說</p> <p>* 朝鮮日報, 정부 소식통 인용 보도</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8. 6		<p>수령님은 곧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이고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는 위대한 수령님이라는 것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될 것임</p> <p>- “위대한 수령 金日成 동지의 혁명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자”는 구호를 관철하는 것을 우리의 사회주의 위업의 전도와 관련되는 가장 중대한 사업으로 내세우고 여기에 최대의 힘을 기울여야 함.</p>	<p>- 북한은 영변 5MW 원자로의 가동을 89년 71일, 90년 30여일, 91년 50여일간 중단했음.</p> <p>- 이를 근거로 할 때 히로시마형 핵폭탄 3~4개 분량, 22~27kg의 플루토늄을 추출한 것으로 추정됨.</p>
8. 7			<p>0 日외무성, 對북한 非군사지원 검토 * 산케이신문</p> <p>- 美·北회담을 측면 지원하고 북한 고립화를 막기 위해 농업을 비롯, 환경·문화교류 등 비군사분야 협력추진을 검토중임.</p> <p>0 北, 핵전쟁 방지를 위한 국제의사회 (IPPNW) 加入 신청 * 기구 관계자 확인</p> <p>- 북한은 수개월전 加入 신청을 했으며 승인여부는 '95 국제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될 것임.</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8. 8	<p>0 李洪九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흡수통일 기회 오면 실현' 발언 * 통일연수원 특강</p> <p>- 흡수통일을 바라지 않지만 기회가 온다면 실현시킨다는 것이 政府입장임.</p> <p>- 민족적 차원에서 흡수통일의 기회는 그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서 피할수있는 그런 문제가 아님</p> <p>0 南北韓 학자들, 컴퓨터 처리 표준화 공동연구 합의 * '94 코리안 컴퓨터 처리 국제학술대회 (연변)</p> <p>- 컴퓨터용어, 한글자모 배열순서, 자판배열 등 우리말 컴퓨터 처리상의 남북간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기·비정기 회의를 열어 표준안을 마련키로 합의</p>	<p>0 외교부 부부장 강석주, 흑연감속로 동결에 따른 보상 요구 * 회담후 記者會見</p> <p>- 경수로 제공이 없이는 흑연감속로 凍結이란 있을 수 없으며, 우리의 흑연감속로 체계의 동결에 따르는 보상도 응당 되어야 함.</p> <p>- 오늘 회담에서 우리는 5MW 시험원자로에서 꺼낸 연료봉 처리와 관련하여 國際社會가 안심할 수 있게 하는 방도를 내놓았음.</p> <p>0 조선종교인협의회 대변인, 남북인간띠잇기대회 不許 규탄 談話</p> <p>- 남조선 당국자들의 이번 처사를 민족의 통일염원에 대한 노골적인 우롱으로, 우리 종교인에 대한 악랄한 도전으로 낙인하면서 준렬히 규탄함.</p> <p>- 김○○ 일당이 조의표시를 탄압한데 이어 종교인들의 인간띠잇기대회마저 가로막음으로써 입버릇처럼 외어대는 화해와 통일이라는 것도 한낱 위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냈음.</p>	<p>0 美·北 3단계고위급 회담 계속</p> <p>0 모이세예프 러 외무성 韓半島 과장, 경수로문제 美·러 본격 협의 발언 * 이타르 타스통신</p> <p>- 美·러는 러시아製 경수로를 제공하는 문제를 활발하게 협의하고 있음.</p> <p>- 북한이 5MW 원자로를 폐쇄할 경우 이로인한 전력손실 보상을 위해 러시아가 油類를 제공하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중임.</p> <p>0 臺灣, 북한과 구상 무역 및 합작투자 적극 추진 * 홍콩 信報지, 劉泰英 국민당 黨營事業 관리위원장 발언 보도</p> <p>- 국민당은 북한에 농축산품 등을 주고 광물과 에너지 자원을 求償무역을 통해 물물교환할</p>

일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8. 8		0 黨·政 간부들, 김일성 사망 한달 즈음 김일성 동상에 화환 진정 (만수대) * 참석 : 오진우 강성산 이종욱 박성철 김영주 김병식 최 광 계응태 외	예정이며 合作投資도 적극 추진중임.
8. 9	0 金泳三 대통령, 統一 대비 재정능력 확충 지시 * 제12회 신경제추진회의 0 李洪九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南北정상회담 개최는 북한의 의사표시 필요 언급 * 국회 외무통일위 보고 - 경수로 지원문제는 북한 核활동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바탕위에서 민족공동체의 건설과 민족복리의 증진이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 경수로전환 지원문제는 결코 핵문제 해결을 위한 반대급부차원에서 고려되는 것은 아님. - 南北정상회담은 북한이 연기의 사유를 해제시키는 필요한 내부절차를 완료하고 별도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할 것임.	0 中央放送, 金日成 회고록 출판 불허 비난 論評 - 우리가 문제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을 출판했다고 해서 폭압소동을 벌이고 있는 것임 -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넘어서 다른 인민들 속에서도 적극 탐독되고 있는 위인의 전기를 동족인 남조선 인민들이 애독하는 것이 어떻게 탄압의 대상으로 될 수 있겠는가. - 예의와 도덕도 모르는 악한으로 규탄과 배격을 받고 있는 김○○ 일당은 또다시 회고록 출판을 탄압함으로써 최악에 최악을 덧쌓고 있음. 0 金正日, 남한·해외 인사들의 김일성 弔電에 대한 답전 발송 * 수신 : 안호상, 신창균, 유원호 박용길, 이창복, 문선명, 임창용 이승만, 윤이상, 손달원	0 마이어스 美 백악관 대변인, 美·北회담에 難題가 많다고 언급 - 회담은 일부 진전이 있었으나 아직 해결해 나가야 할 많은 복잡한 問題들을 갖고 있음. 0 IAEA, 북한 核연감속로 동결로 核위협 감소 평가 * IAEA 소식통 - 북한의 核연감속로 동결조치는 北韓의 핵폭탄 제조위험을 줄일 것임. 0 美WSJ紙, 카터 訪北 레이니 駐韓美대사가 요청 보도 - 레이니 대사는 북한 핵문제로 한반도 무력충돌 위험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8. 9	<p>0 李洪九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휴전이후 拉北者 438名 명단 공개</p> <p>* 국회 외무통일위 제출 북한 인권실태 보고서</p> <p>- 休戰이후 해상이나 항공기를 통해 北韓에 납치된 한국인은 4백 38명이며 이 가운데 사망자를 제외하고 현재 억류되고 있는 인원은 모두 4백 29명임.</p> <p>0 국회 외무통일위, 拉北인사 송환 촉구 決議文 채택</p> <p>* 『북한 억류인사의 송환과 인권개선에 대한 국회외무통일위 입장』</p> <p>- 국제사면위원회에 의해 밝혀진 高相文씨등 납북 인사들이 당장 송환되고 가족과 재상봉되어야 함.</p> <p>- 北韓은 이산가족재회와 억류자 송환 등 인도적 문제를 위해 南北이 채택한 합의서를 성실히 이행 실천하여야 함.</p>		<p>이 고조되자 카터 前 美대통령에게 빨리 平壤을 방문 해주도록 요청했음</p> <p>0 러 일간지, 北韓 별목공 우리놈 채취 보도</p> <p>* 모스콥스키에 콤소몰레츠紙</p> <p>- 70년대에 문을 닫은 우리놈폐광에서 방사능측정기를 휴대하고 드나드는 것이 목격됐으며 우리놈을 채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p>
8.10		<p>0 北韓 적십자회 중앙위 대변인, 비전향 출소자 김인서·함세환 송환 촉구 記者會見</p> <p>- 조상전례의 예의풍습과 인륜</p>	<p>0 美·北 3단계고위급 회담 계속</p> <p>* 전문가회의 별도 개최</p>

일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8.10		<p>도덕마저 무시하고 弔意도 표시하지 않는 자들이 감히 인권을 떠들면서 의거자들에게 모독적인 언동을 일삼는 것은 언어도단이며 절대로 용납될 수 없음.</p> <p>- 남조선 당국자들이 응당 돌려보내야 할 사람들은 억류해 두면서 의거 입북자들을 그에 대치시키려 하는 것은 비전향 장기수들의 송환을 가로막기 위한 모략술책이며 적반하장격의 억지주장임.</p> <p>- 숭고한 적십자인도주의 사명에 맞게 그들을 공화국 북반부로 무조건 즉시 송환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p> <p>0 平壤放送, 남북억류자 高相文氏 기자대담 보도 * '지리학 연구사' 로 일하고 있다고 주장</p> <p>- 入北해서 아버지 수령님을 하늘처럼 믿고 살고 있음. 15년동안 아무 불편없이 아버지가 수령님 밑에서 생활해왔음</p>	<p>0 美政府, 한국 국가보안법 개폐 희망 * 對언론 답변 자료</p> <p>- 美정부는 그동안 수차에 걸쳐 한국의 國家保安法으로 인해 야기되고 있는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바 있음.</p> <p>- 우리의 이러한 입장에선 변함이 없음.</p> <p>0 야마시타 駐韓 日本 대사, 북한 핵의혹 해소전 日·北 수교협상 가능 언급 * 駐日 한국특파원 회견</p> <p>- 핵의혹 해소가 양국간 수교협상 재개의 전제조건은 아님.</p>
8.10		<p>- 79년 内外 기자회견에서 명백히 밝혔지만 남쪽 당국자들의 박해때문에 공화국 북반부에 자발적으로 걸어 들어온 의거 입북자임.</p>	<p>- 日本은 북한과의 수교협상을 통해 핵의혹 해소를 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함.</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8.10		<p>0 노동당 대표단, 金日成 사후 처음으로 中國 (遼寧省) 방문 * 단장 : 국제부 중국담당 류용 문</p> <p>0 金正日, 60여개국 국가수반들에게 김일성 弔電에 대한 答電 발송</p>	<p>0 美정보기관, 金正日 체제 정착에 5년 소요 전망 * 日교도통신 보도</p> <p>- 美 CIA와 국방정보국(DIA)은 94.1 김정일이 金日成사후 정권을 잡더라도 북한의 정치·경제 체제를 개혁하는데 5년이 필요하며, 이 기간동안 군부에 의한 쿠데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p>
8.11	<p>0 외무부 대변인, 美국무부의 국가보안법 개폐 언급 관련 유감 論評</p> <p>- 현재의 남북분단 현실에 비춰볼 때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법의 존폐문제는 우리가 판단할 국내문제임.</p>	<p>0 『汎民聯』북측본부 대변인, 범민족대회 관련 북측대표단 서울 파견 및 平壤 행사 일정 발표</p> <p>- 5.26 제2차 汎民聯 공동의장단회의 합의에 따라 8.14 판문점을 통하여 10명의 대표들을 서울에 파견하며, 이보다 하루앞서 5명의 대표들을 도쿄에 보내게 됨.</p> <p>0 전국 사로청 일꾼들, 김정일에 충성맹세 모임 (만수대 김일성 동상앞)</p>	<p>0 美상원, 對北 재정지원금지案 재통과</p> <p>- 북한의 핵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對북한 재정지원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방세출법안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p> <p>- 대통령이 국가안보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의 적용을 유보할 수 있다는 단서 첨부</p>

일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8.11		<p>0 손원태 80돌 생일 축하연회 (목란관) * 참석 : 이종옥, 양형섭, 장 철 박남기, 류미영, 강석승, 여연구</p>	<p>0 中 『현대병기』誌, 북한 노동 1호 미사일 核·化學무기 적재 가능 보도</p> <p>- 노동 1호는 소련製 스킨드 미사일보다 정확도가 높고, 유사시 TNT 5만t에 해당하는 核彈이나 VX신경독가스탄을 적재할 능력을 갖고 있음.</p>
8.12	<p>0 姜英勳 韓赤 총재, 남북적십자사 총재 또는 부총재 接觸 제의 * 적십자회담 제의 23주년 즈음 聲明</p> <p>- 남북의 적십자인들은 하루속히 모여앉아 지금까지 이룩한 合意事項을 재확인하고 사업이 실천을 도모해 나가야 함.</p> <p>- 중단된 南北적십자회담은 조속히 재개되어 서로 편지를 교환하고 상봉하며 자유왕래할 수 있는 인도의 가교를 놓아야 함.</p> <p>- 남북이산가족들의 교환방문단 교환도 다시 이어져야 하며, 합의한 남북이</p>	<p>0 『祖平統』, 李洪九 통일원장관의 흡수통일 관련 발언 비난 聲明</p> <p>- 통일업무를 주관하는 통일원 장관이라는 자가 이른바 政府 입장으로 감히 흡수통일 운운한 사실을 절대로 수수방관할 수 없음.</p> <p>- 문민을 표방하는 김 〇〇 일당이 흡수통일을 공개적으로 표방해 나선 것은 北南사이에 대결을 선포하고 北南최고위급회담을 일방적으로 완전히 무효화한 계획적인 행위로 된다고 인정하고 단호히 규탄함</p> <p>- 남조선 통치배들이 이미 한달 전에 벌써 정상회담문제를 원점에서 논의해야 하며 김 〇〇</p>	<p>0 美·北 3단계고위급 회담 1차회담 종료 (제네바)</p> <p>0 페리 美국방장관, 北核 과거와 현재·미래 核투명성 보장 분리 접근 언급 * 美CNN-TV 회견</p> <p>- 미국 정부의 北核 정책은 먼저 북한의 핵계획을 동결시킨 후 과거에 대한 원상회복을 시도하는 것임.</p> <p>0 日 방위문제보고서, 북한과 군사대화 추진 언급 * 총리자문 '방위문</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8.12	<p>산가족 노부모방문단은 지체없이 교환되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사람들의 생사와 소재가 밝혀져야 하며 이제라도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와야 함. - 사급히 해결해야 할 이같은 과제를 협의해 나가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쌍방의 總裁 또는 副總裁가 아무런 조건없이 회동할 것을 제의함. - 회동이 板門店에서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 지기를 희망하며 북한측의 조속한 호응이 있기를 기대함 <p>0 韓昇洲 외무부장관, 美國 무부의 보안법 개폐 언급 관련 레이니 駐韓美대사 불려 遺憾 표명</p>	<p>까지 나서서 회담을 서울에서 먼저하는 것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한 것도 北南최고위급회담 개최에 관한 쌍방 합의사항을 백지화하고 흡수통일 야욕을 보여준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 〇〇 일당이 감히 흡수통일 야망을 꿈꾸며 우리와의 전면대결을 선포해 나선이상 그에 상응한 措置를 취하는 것은 우리의 신성한 권리임. <p>0 외교부 대변인, 핵보유국들의 핵정책 수정 촉구 記者會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무기 소유국들은 비핵국가에 대한 무조건적인 핵불사용 담보를 하며 핵무기 선제불사용 및 핵무기 사용의 완전금지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는데 한시바삐 나서야 함. -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핵무기 축감과 전면적 핵시험금지조약 체결, NPT 효력연장 등은 핵무기 완전철폐로 지향되어야 함. - 朝·美회담은 조선반도의 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이 지역에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 실질적인 기여를 해야 함. 	<p>제 간담회 '보고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은 장래 북한과도 군사부문 대화를 추진하고 UN 평화유지군(PKF) 참가 등을 통해 능동적으로 국제질서형성에 기여해야함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8.13	<p>0 외무부 대변인, 美·北 합의성명 발표 관련 論評</p> <p>- 정부는 합의발표문이 핵 문제의 중국적 해결을 위해 상호 지향해야할 원칙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이를 평가함.</p> <p>- 북한이 NPT에 잔류, IAEA 안전조치협정 이행,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완전한 이행을 약속한 것이 북한 핵활동의 과거·현재·미래에 대한 核투명성 확보를 위해 바람직한 일로 판단함.</p> <p>0 韓·美 외무장관, 美·北 3단계회담 결과 관련 전화 협의</p> <p>- 북한 核의 투명성 확보가 美·北 합의의 기초가 되고 있음을 재확인하고 양국간 긴밀 협조 다짐</p> <p>0 북한 주민 이철수氏 일가족 3명 귀순</p> <p>* 만포시 객화차대 물자조달원</p>	<p>0 美·北韓, 3단계 고위급회담 1차회담후 『합의성명』 발표 (제네바)</p> <p>< 朝·美 합의성명(8.12字) ></p> <p>- 쌍방은 '93.6.11 朝·美 공동성명의 원칙들을 재확인하고 다음 사항들이 핵문제의 중국적 해결의 일환으로 된다는데 대하여 합의하였음.</p> <p>1. 조선은 흑연감속로들과 연관 시설들을 경수로 발전소들로 교체할 용의를 표명하였으며 (is prepared to) 美國은 가능한 빠른 시일안으로 2백만 KW(2,000MW) 발전능력의 경수로 발전소들을 조선에 제공하며 그동안 조선에 흑연감속로들을 대신할 대용에너르기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기로 하였음.</p> <p>조선은 경수로와 대용에너르기 제공조치에 대한 미국의 담보를 받는 차제로 5만KW, 20만KW 발전능력의 흑연감속로들의 건설을 동결하고 재처리를 하지 않으며 방사화학실험소를 봉인하고 IAEA의 감시하에 두기로 하였음.</p> <p>2. 朝·美는 정치, 경제관계의 완전한 정상화를 위한 조치</p>	<p>0 갈루치 美국무차관보, 北 특별사찰 수용 원칙 합의 언급</p> <p>* 합의성명 발표후 記者會見</p> <p>- 북한측이 이번 발표를 통해 特別査察이라는 개념을 원칙적으로 받아들였음.</p> <p>- 북한이 특별사찰에 동의할 때까지는 경수로 지원을 하지 않을 것임.</p> <p>0 키드 IAEA 대변인, 美·北합의 긍정 평가</p> <p>- 북한과 미국이 제네바에서 이룬 합의를 원칙적으로 환영하지만 아직 해결돼야할 쟁점들이 많이 남아있음.</p> <p>-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북한이 NPT를 존중기로 약속했다는 점임.</p> <p>0 데라다 日 외무성 대변인, 美·北합의</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p>로서 각기 상대방의 수도들에 외교대표부들(diplomatic representation)을 설치하고 무역 및 투자장벽을 완화하기로 하였음.</p> <p>3. 조선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및 안전을 이룩하도록 하기 위하여 美國은 조선에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는다는 담보를 제공할 용의를 표명하였으며 朝鮮은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북남공동선언을 이행할 일관한 용의를 표명하였음.</p> <p>4. 조선은 NPT의 성원국으로 남아있으며 조약에 따르는 담보협정의 이행을 허용할 용의를 표명하였음.</p> <p>- 이번 회담에 제기된 문제들 가운데는 아직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들이 남아있음</p> <p>- 쌍방은 조선의 흑연감속원자로계획을 경수로기술로 교체하는 사업과 폐연료의 안전한 보관과 처분, 대용에너르기의 보장, 연락사무소 (liaison office) 개설을 추진하기 위한 전문가급 協商들이 필요하다고 합의하였음.</p> <p>- 이에 따라 전문가급 협상들이</p>	<p>관련 論評</p> <p>- 북한이 이번 공동성명 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행동, 남은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核무기개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주기 바람.</p> <p>0 中 외교부 대변인, 美·北합의 환영 論評</p> <p>- 중국은 이번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환영함.</p> <p>0 佛르몽드紙, 美·北합의 관련 핵문제 해결에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주장</p> <p>- 북한은 단 하나의 카드로 외교적 승인과 경제적 지원을 얻은 반면 미국은 폐연료봉을 외국의 관할하에 두는데 실패했으며 오히려 재정부담을 지게 됐음.</p> <p>0 카라신 러 외무부 대변인, 美·北합의</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8.13		<p>조선과 미국 혹은 합의되는 다른 장소에서 진행되게 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朝·美는 회담을 휴회하고 94.9.23 제네바에서 재개하기로 합의하였음. - 그때까지 美國은 핵문제의 중국적 해결의 일환으로서 조선에 경수로 제공 담보를 주기 위한 조치들을 추진시키며 朝鮮은 외교부 강석주 제1부 부장과 美國무성 갈루치 차관보사이에 94.6.20, 6.22 교환된 메시지들에서 합의된 核활동의 동결과 담보의 연속성을 유지하게 됨. <p>0 외교부 부부장 강석주, 美·北 합의성명 채택 관련 記者會見 (제네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장 중요한 문제는 현재 비정상관계에 있는 우리와 美國이 도달해야 할 최종 종착점들을 확고히 하고 그에 대한 합의를 이룩한 것임. - 경수로발전소 제공과 보상문제를 법적으로 담보하고 그 이행의 필수적인 법적 및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기 위해 朝·美사이에 관계정상화 조치들이 뒤따르게 됨. 	<p>환영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北 협상의 타결로 복잡한 한반도 교착상태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게 되었음. - 러시아는 이 타결의 지지자로 남아 있을 것임.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8.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이 명백하고 확고한 경수로 제공을 담보하고 우리가 경수로를 받을 때까지 흑연로 동결에 대한 실천적인 보상조치를 취하는데 따라 우리도 동결조치를 段階的으로 취해 나가자는 것임. - 미국이 책임지고 경수로를 제공할겠다는데 대해 우리와 합의하였으며, 美國이 경수로 제공문제를 어떤 나라들과 토의하여 실현하는가 하는 것은 미국의 책임에 속하는 문제임 - 우리는 특별사찰에 대해 인정해본적도 없고 절대로 접수할 수 없음. 核활동의 투명성 보장문제는 IAEA의 불공정성이 완전히 해소되는가 안되는가에 전적으로 좌우됨. - 폐연료봉 처리문제는 실무협상을 통해 해결하자는 것이며 이번 협상에서 합의본 것은 폐연료봉을 안전하게 장기건식보관하는 조건에서 재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임. - 외교대표부 설치에서 연락사무소를 하겠는가 연락대표부로 하겠는가 하는 것과 그 시기문제는 실무급협상에서 토의하기로 하였음. 	

일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8.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가 NPT에 언제부터 복귀하는가 하는 것은 IAEA의 불공정성이 완전히 해소되고 朝·美관계가 정상화될 때에 가서 결정될 것임. 0 외교부 부부장 강석주, 북한 정책노선 불변 강조 * 워싱턴 포스트紙, 로이터 통신, 요미우리신문, NHK 방송 등과 記者會見 (제네바) - 金正日是 혁명위업의 계승자로서 이미 오래전부터 당과 국가, 군대의 전반 사업을 영도해 왔으며 앞으로 그 어떤 變化도 절대로 있을 수 없음. - 金日成이 밝힌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 3대원칙에 기초하여 聯邦制 방식으로 통일을 실현해야 함. - 特別査察이란 말 자체도 인정하지 않으며 경수로 제공과 절대로 연관될 수 없음. - 경수로 제공과 관계정상화로 朝·美사이에 신뢰가 보장되고 IAEA의 불공정성이 완전히 해소되고 IAEA와의 관계가 정상화되면 核투명성을 보장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명백히 함.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8.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이 朝·日관계 개선에 관심이 있다면 핵문제, 일본인 문제 등 부당한 전제조건들을 철회하고 그 어떤 조건도 없이 朝·日국교정상화 회담에 성실한 자세로 나와야 함. 	
8.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0 韓昇洲 외무부장관, 과거 核의혹 규명이 경수로지원 전제라고 강조 * 기자회견 - 북한에 대한 경수로 지원은 特別査察 등 북한핵 과거 의혹에 대한 규명이 전제될 때만 가능함. - 회담 합의문에 북한이 핵 안전조치를 이행하겠다고 밝힌 것은 결국 특별사찰을 받게 된다는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0 日아사히신문, 김정일 개방정책 추진 표명 보도 - 金正日是 7.20 재 미교포 문명자氏와 회담을 갖고 북한 경제재건을 위해 개방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8.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0 金泳三 대통령, 『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 천명 * 광복절 49주년 慶祝辭 - 통일은 계급이나 집단중심의 이념보다도 인간중심의 自由民主主義가 바탕이 되어야 함. - 통일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0 제5차 범민족대회 개최 (2.8 문화회관) * 참석 : 박성철, 양형섭, 김용순 장 철, 유미영, 백남준, 이인모 * 공동결의문, 7천만 겨레에게 보내는 호소문, 세계 평화에 호인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美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등 채택 < 汎民聯 북측 의장 백인준 대회보고 요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0 매커리 美국무부 대변인, 美·北합의는 사실상 특별사찰 포함 발언 - 북한이 핵안전협정 준수를 약속한 것을 우리는 분명히 特別査察도 포함하는 것으로 봄. - 다만 특별사찰을 언제, 어떻게 하느냐

일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8.15	<p>이루어 나가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 방안'은 통일의 중간과정을 거쳐, 궁극적으로 1민족 1국가로 통일을 완성해 나가는 것임. - 통일의 길은 민주와 번영의 길이어야 하며, 통일된 조국은 개개인의 자유와 福祉와 人間尊嚴性이 보장되는 민족공동체를 토대로 건설되어야 함. - 북한이 核활동의 투명성을 보장한다면, 북한의 경수로 건설을 비롯한 평화적 核에너지의 개발에 우리의 자본과 기술을 지원할 용의가 있음. - 이것은 우리 민족공동체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民族發展 共同計劃'의 첫 사업이 될 수도 있을 것임. - 통일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갑자기 닥쳐올 수도 있음. 모든 가능성을 점검하고 충분히 준비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통일 파쇼악법인 국가보안법을 휘두르는 한 김○○일당은 對話와 統一에 대하여 말할 자격이 없음. - 金正日의 현명한 영도가 있고 그를 통일의 구성으로 우려르며 통일대진군을 다그치고 있는 우리 민족의 불패의 힘이 있는 한 90年代 統一은 확정적임. <p style="text-align: center;">〈 共同決議文 요지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세의 개입과 간섭에 반대하며 民族自主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통일과 조선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하여 노력할 것임. 2. 조국을 자주적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해 汎民聯을 중심으로 북과 남, 해외동포들의 대단결운동을 줄기차게 벌여나갈 것임. 3. 먹고 먹히우는 통일을 반대하며 聯邦制 통일방안을 대중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임. 4. 북남 당국이 北南合意書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위해 노력할 것이며 國家保安法을 철폐하고 모든 양심수의 석 	<p>나는 것은 앞으로 계속협의할 문제임</p> <p>0 데이비스 美국무차관, 美·北 신속합의는 일괄타결에 동의했기 때문이라고 언급</p> <p>* 美PBS-TV 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北회담에서 신속한 합의가 가능했던 것은 양측이 핵문제의 일괄타결에 동의했기 때문임. - 미국은 폐연료봉을 북한밖으로 반출하는데 북한이 동의할 것을 희망하고 있으며, 폐연료봉 저장기간 연장을 위한 기술지원을 제의했음. <p>0 사이토 日외무차관, 北核 과거 의혹 해소엔 경수로 지원 용의 표명</p> <p>* 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韓의 과거 核 의혹이 완전히 해명되면 경수로 지원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8.15	<p>0 韓昇洲 외무부장관, 美·北 합의 이행과정에 南北對話 재개 전망</p> <p>* 기자회견</p> <p>- 美·北 합의의 성격으로 보아 현실적으로 한국형 경수로 이외에 대안이 나오기 어려움.</p> <p>- 경수로 제공이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이행, 대체에너지의 제공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南北對話의 재개가 불가피함.</p>	<p>방을 위해 노력할 것임.</p> <p>5. 최근 日本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 동포와 동포단체들에 대한 비이성적 행위들의 저지와 핵무장화 등 日本의 군국주의 부활 움직임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임.</p> <p>※ 범민족대회 관련 動向 종합</p> <p>- 8.13 : 90년대 통일실천 결의 행진 및 집회(만수대)</p> <p>- 8.14 : 조국통일대토론회 (인민문화궁전)</p> <p>” 90년대 조국통일을 위한 청년학생 연단 (모란봉 청년공원)</p> <p>” 『범민련』 북측대표단, 판문점 통과 불허 규탄 聲明 (판문점)</p> <p>” 제4차 북남·해외동포 청년학생 통일대축전 개막식 (도쿄)</p> <p>- 8.15 : 제5차 범민족대회</p> <p>” 『범청학련』 북측본부 중앙위 확대회의 (2.8문화회관)</p> <p>* 의장단·중앙위원 구성 및 공동투쟁 결의문 채택</p> <p>” 『범청학련』 북측본부 및 해외본부, 남측대</p>	<p>에 응할 용의가 있음.</p> <p>0 홍콩 『當代』 지, 김영삼 대통령 訪中 시 北韓 암살기도說 보도</p> <p>* 張植榮 북경大 강사 기고문</p> <p>- 北韓은 지난 3월 김대통령 북경방문 시 3명의 특수요원을 파견, 암살을 기도했으나 중국 정보기관에 사전 적발돼 미수에 그쳤음.</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8.15		<p>표의 판문점 통과 불허 규탄 연합성명 (판문점) ” 통일문화의 밤(옥류관)</p> <p>0 노동신문, 姜英勳 韓赤 총재의 회담 제의 거부 (論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당 관심을 두고 해결해야 할 인도주의적 문제들은 한사코 외면하면서 왕래니 방문단 교환이니 회담재개니 하는 것은 여론에 대한 우롱임. - 이른바 拉北者문제란 남조선 사회제도에 환멸을 느끼고 공화국 북반부에 의거 입북한 사람들을 두고 하는 소리임. - 남조선 적십자사가 당장 관심하고 해결해야 할 인도주의 문제, 인권문제는 남조선안에 있음. - 파쇼당국의 시녀 나팔수 노릇을 할 것이 아니라 인권을 유린하는 國家保安法 폐지를 주장해야 하며 김인서·함세환의 송환문제를 해결해야함. <p>0 黨·政간부들, ‘조국해방’ 49돌 즈음 만수대 김일성 동상에 화환 진정</p> <p>* 참석 : 이종옥, 김영남, 최 광홍성남, 양형섭, 김봉률 外</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8.16	<p>0 金泳三 대통령, 남북정상 회담 北 제의멘 수용 언급 * 민자당 의원 초청 만찬 만찬</p> <p>- 북한측에서 제의가 오면 할 수 있는 것임. 아마도 북한측에서 먼저 제의할 것으로 보임.</p> <p>- 우리는 북한 核투명성만 보장된다면 경수로 건설을 지원하겠음.</p> <p>0 李榮德 국무총리, 범정부적 통일교육 실시 지시 * 국무회의</p> <p>-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이고 종합적인 통일교육이 시급함.</p> <p>- 각 부처는 필요한 기구를 구성, 통일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사회전반에서 적극 활용토록 추진함.</p> <p>0 韓昇洲 외무부장관, 노르웨이에 拉北 고상문씨 송환 협조 요청 * 외무장관회담</p> <p>- 북한에 억류중인 高相文씨의 조속한 송환을 위해</p>	<p>0 『韓民戰』 중앙위, 남한 핵개발 주장 '공개질의서' 발표</p> <p>0 이인모, 범민족대회 참가 해외 동포들과 상봉 (고려호텔)</p>	<p>0 錢其琛 중국 외교부장, 김정일체제 가동 언급 * 가토 日 자민당 政調회장과 회담</p> <p>- 美·北회담의 합의를 통해 판단할 때 北韓의 새 지도부가 움직이고 있는 것은 확실함.</p> <p>0 日 아사히신문, 金日成 묘향산에서 심장발작으로 사망 보도 * 在美언론인 문명자氏 발언 인용</p> <p>- 金日成은 7.7 묘향산근처 농장을 현지시찰한 후 묘향산으로 돌아와 갑자기 심장발작으로 사망했음.</p>

일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8.16	<p>중립이 보장되는 제3국으로 데려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노르웨이 정부가 협조해 줄 것을 요청</p> <p>0 北韓 별목공 8명, 제3국 통해 귀순</p> <p>* 임만규, 한창권, 최학진, 김순구, 이상운, 전명수, 이철수, 김창호</p>		
8.17	<p>0 韓·美 정상, 美·北3단계 회담 결과 관련 전화협의</p> <p>< 朱燮植 청와대 대변인 발표 요지 ></p> <p>- 특별사찰 등이 이루어져 북한 핵의 과거 투명성이 보장돼야 경수로 건설을 지원할 수 있다는데 의견 일치를 보았음.</p> <p>- 北核 협상과정 단계마다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며 북한이 한국형 경수로를 수용토록 설득키로 했음.</p> <p>- 金正日 체제가 불안정 상태인 만큼 핵협상에 신중하게 접근한다는데 의견 일치를 보았음.</p>	<p>0 외교부 대변인, 美 국무부의 국가보안법 폐지 언급 관련 記者會見</p> <p>- 美 국무성이 남조선의 인권유린행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 있는 국제여론에 합류한 것이라고 생각함.</p> <p>- 남조선 당국자들이 분단상황 때문에 國家保安法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궤변을 늘어놓는 것은 北南사이의 대결을 격화시켜 나라의 분열을 영구화하려는 기도를 드러내놓은 것임.</p> <p>- 국제사회계는 인권이 유린 말살되고 있는 南朝鮮의 현사태에 응당한 관심을 돌리고 국가보안법이 하루속히 철폐되</p>	<p>0 매커리 美 국무부 대변인, 전문가회담 9.4 재개 언급</p> <p>- 美·北 전문가회의가 9.4 재개될 예정이나 북한의 핵동결은 경수로 제공여부에 좌우될 것임.</p> <p>- 미국은 對北 경수로 지원과 관련, 北韓에 제시할 방안을 아직 결정하지 못했으며 韓國 등과 이 문제를 계속 협의할 것임.</p> <p>0 日, 북한 경수로 지원 G7에 요청 방침</p> <p>* 마이니치신문 보도</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8.17	<p>0 李洪九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경수로 비용 美·日도 분담해야 한다고 언급 * 기자간담회</p> <p>- 미국이 NPT체제 유지를 주요 정책목표로 삼아왔고 日本도 국제평화와 지역발전 기여를 천명하고 있는 만큼 경수로 건설에 상응한 몫을 분담해야 할 것임.</p> <p>- 南北頂上會談 연기는 북한측 유고 때문이며, 북한측이 먼저 입장을 정리하기를 기다리고 있음.</p> <p>0 통일원차관 주재 북한억류자 실무대책회의 개최 * 高相文씨 등 납북자 귀환 대책 논의</p> <p>0 朴健雨 외무부차관, 對北 경수로 무상지원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발언 * 국회 외무통일위 간담회</p> <p>- 40억弗에 이르는 비용 부담은 컨소시엄 구성, 방위비 분담금 축소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이나 무상제공은 고려하지 않고 있음.</p>	<p>도록 하여야 할 것임.</p> <p>0 拉北者 7명, 의거 入北 주장 내외신 記者會見 (고려호텔) * 유성근, 최성만, 이장수, 김영규, 양영식, 김태식, 김재수 참가</p> <p>- 의거자들은 한결같이 남조선 사회에 환멸을 느끼고 인간의 존엄과 행복이 확고히 담보되어 있는 공화국의 품을 찾아 제발로 들어왔다고 말했음.</p> <p>0 職總·農勤盟·女盟 일꾼들, 김정일에 충성맹세 모임. (만수대 김일성동상 앞)</p> <p>0 외교부 부부장 강석주, 美·北 회담 참가후 平壤 귀환</p>	<p>- 日정부는 수십억弗에 이르는 북한 경수로전환 지원문제와 관련, 자금지원 부담을 덜기 위해 선진 7개국(G7)에 의한 협조지원을 제안할 방침임.</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8.18	<p>0 金泳三 대통령, 한국형 경수로 채택 강조 * 민자당 黨務회의</p> <p>- 경수로 건설은 우리가 책임질 문제만큼 절대 한국형이어야 함.</p> <p>- 韓國 기술진이 가고 한국의 자본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결코 양보할 수 없음.</p> <p>- 남북간 체제경쟁은 끝났으며 언제 갑자기 통일이 닥쳐올지 모름. 黨과 政府가 통일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임.</p>	<p>0 노동신문, 金泳三 대통령 8.15 경축사 비난 論評</p> <p>- 동족이 사는 북에 대해 악의에 차서 비방·중상하며 감히 남을 넘겨다보는 흥심까지 공공연히 드러낸 것이라고 總評할 수 있음.</p> <p>- 통일문제, 남북관계문제에 역점을 두었다지만 사실상 비현실적이고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임.</p> <p>- 점진이요 단계요 하며 통일을 늦잡은 것 자체가 겨레의 통일지향에 대한 도전임.</p> <p>- 통일은 自由民主主義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떠들은 것은 남조선에 세워진 식민지예속체제, 파쇼독재체제를 北에까지 옮겨놓겠다는 것임.</p> <p>- 核투명성이요 뭐요 함으로써 3단계 朝·美회담 성과를 희석시키며 朝·美관계에 제동을 걸어보려 하였음.</p> <p>0 『汎民聯』북측본부 중앙위, 범민족대회 관련 對南 비난 聲明</p> <p>- 서울 범민족대회에 대한 남조선 파쇼광들의 야만적인 탄압</p>	<p>0 매커리 美국무부 대변인, 核물질 밀수 북한 관련설 부인</p> <p>- 북한인이 러시아로부터 核물질을 밀수했는지 여부에 대해 아는바 없음.</p> <p>0 러 핵산업관리, 러시아, 10년전부터 北경수로 건설 준비 발언 * 핵발전소 운영 컨소시엄 대변인</p> <p>- 러시아 核전문가들이 이미 10년전에 北韓에 대한 VVER 型 경수로 2기의 건설가능성을 검토하여 대상지 확인까지 마쳤으나 재원부족으로 중단된 상태임.</p> <p>0 홍콩 파이스턴 이코노믹 리뷰誌, 北韓, 백화원초대소를 카터초대소로 改名 보도</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8.18		<p>은 이른바 文民을 떠벌이는 김 〇 〇 일당의 파쇼적 정체와 반민족성을 고발해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p> <p>- 김 〇 〇 일당은 지체없이 타도되어야 하며 국가보안법은 즉시 철폐되어야 함.</p> <p>〇 中央放送, 인민학교 학생의 金正日 건강기원 편지 선전</p>	
8.19		<p>〇 평양방송, 金泳三 대통령 방중 시 암살기도설은 安企部 모락극이라고 주장 (論評)</p> <p>- 安企部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날조모락설을 베이징대학 현직장사라는 사람의 입으로 기고문을 내게하고는 그 내용을 인용 보도하는 식으로 오그랑수를 썼음.</p> <p>- 우리에게서 테러와 암살같은 것이 있어본 적도 없고 있을 수도 없음.</p> <p>- 피로써 맺어지고 역사의 온갖 시련을 이겨내며 공고화되어 온 朝·中친선이 모락때문에 금이 가거나 훼손될 수 없음.</p> <p>〇 『汎靑學聯』 북측본부 중앙위, 범민족대회 관련 對南 비난 聲明</p>	<p>〇 美, 對북한 첨단기술제품 수출 규제 『수출관리법』 무기 연장</p> <p>* 8.26 駐美한국대사관 발표</p> <p>- 클린턴 美대통령은 北韓을 포함한 특정국가에 대해 첨단기술제품의 수출을 규제하는 輸出管理法(EAA)의 적용을 무기 연장하는 행정명령 발령</p> <p>〇 美 동북아전문가들, 10년내 韓國 주도 흡수통일 전망</p> <p>* 權泰榮 국방연구원 박사, '94. 4~5월 美 전문가 52명 대상 여론조사</p>

일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8.19		<p>0 스웨덴 주재 북한대사 염경식, 金正日 호칭 '위대한 지도자' 로 바뀌었다고 발언 * 記者會見</p> <p>0 北韓, 對外무역정책 전환 추진 * 북한 주체과학원 경제연구소 부소장 김정기, 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 '조선의 새로운 발전전략' (중국 심양)</p> <p>- 지금까지 대외무역을 국가무역기구가 전담했던 것에서 탈피, 모든 생산부문들이 독자적인 무역기구를 갖게 함.</p> <p>- 합영·합작형태의 기업과 은행을 설립하고 자유무역지대, 자유항 등 특별지구를 설정함으로써 대외무역을 촉진시킴.</p>	<p>- 통일시기에 대해 응답자중 66%가 10년 이내, 32%가 20년 이내로 전망</p> <p>- 통일方式에 대해서는 68%가 韓國주도 흡수통일로, 28%가 상호합의에 의한 점진적 방식 통일 전망</p>
8.20	<p>0 李榮德 국무총리, 경수로 지원으로 통일기초 마련 언급 * 원자력연구소 순시</p> <p>- 앞으로 북한의 경수로 건설에 대해 技術支援까지 하게되면 통일의 기초가 마련될 수 있을 것임.</p>	<p>0 외교부 대변인, 特別査察 전제 경수로 도입 절대불가 주장 * 記者會見</p> <p>- 우리는 결코 경수로나 받겠다고 자주권을 침해당하면서까지 군사대상에 대한 사찰을 허용할 수 없음.</p> <p>- 경수로를 제공받으려면 특별사찰을 수용해야 한다는 일본과 남조선당국자들의 주장에는 결국 조미 합의성명 자체를 뒤집</p>	<p>0 日, 對北경수로 지원 多國籍기구 검토 * 니혼게이자이 신문</p> <p>- 北韓의 경수로지원에 따른 자금각출을 위해 한·미·일3국을 비롯, 유럽 호주 등과 多國籍機構를 설치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음.</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8.20		<p>어 옳고 또다시 조미사이의 대 결을 고취해 보려는 불순한 정 치적 목적이 깔려있다고 볼 수 밖에 없음.</p> <p>- 우리가 인정해 본적도 없고 인정할 수 도 없는 이른바 특별 사찰이라는 것을 문제해결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면서 계속 복잡성을 조성하려 한다면 다시 충돌이 일어날 수 밖에 없을 것임. 우리는 그에 대처할 만단의 준비가 되어 있음.</p> <p>0 당 중앙위원 최만현 (前금속공업부장) 사망</p>	
8.21		<p>0 中央放送, 야심가·음모가들의 배신행위 경고 (論說)</p> <p>- 역사적 경험은 수령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할 후계자 문제를 바로 해결하지 못 하면 야심가 음모가들의 배신행위로 해서 당과 혁명이 농락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p> <p>- 수령의 후계자 문제는 후계자를 옳게 내세우는 것과 함께 수령의 후계자의 영도를 실현할 수 있는 조직 사상적 기초를 튼튼히 쌓고 그의 영도체계를 확고히 세워야만 해결됨</p>	

일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8.22	<p>0 金泳三 대통령, 남북간 우편·통신교류 촉진 강조 * 만국우편연합(UPU) 제21차 총회 개막식 치사</p> <p>- 남북간 우편·통신교류를 촉진시키고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람.</p> <p>0 韓昇洲 외무부장관, '특별사찰' 용어 고집않겠다고 언급 * 기자회견</p> <p>- 북한이 실질적으로 특별사찰에 준하는 과거核 투명성 보장을 해준다면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을 것임.</p> <p>- 특별사찰이라는 용어를 고집함으로써 北韓이 거부하는 압박을 주는 것은 실질적인 사태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없음</p> <p>0 '94 『을지-포커스 렌즈』 훈련 실시(8.22~9.4) * 韓·美연합군 도상지휘소 연습으로 2주간 실시</p> <p>0 北韓 별목공 한철길氏 귀순</p>	<p>0 中央放送, 『을지·포커스 렌즈』 훈련 비난</p> <p>- 사실들은 단순한 지휘소훈련이 아니라 공화국을 불의에 선제타격하기 위한 매우 위험천만한 試驗戰爭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p> <p>- 김○○도당이 합동군사연습을 벌여놓은 것은 남조선 인민들의 높아가는 통일열망을 짓눌러놓고 좋게 발전하는 核問題 해결의 길을 가로막으려는데 그 목적이 있음.</p> <p>- 괴뢰들이 인민들의 평화통일 염원에 도전해서 전쟁소동을 벌이는 것은 제 손으로 제 죽을 구덩이를 파는 것이나 다름없음.</p> <p>0 北韓, 일본 관광객 入北 허용</p> <p>- 중단 15개월만에 재개되어 관광객 32명이 北京을 거쳐 평양으로 출발</p>	<p>0 中, 對北 곡물수출 격감 * 駐中 한국대사관, 중국 海關總署 통계 인용 발표</p> <p>- '94.1~5월 중국이 북한에 수출한 곡물규모는 744만 3천弗로 지난해 동기간의 6천 81만弗보다 87.8% 감소</p> <p>0 러, 北 탈출 별목공 신원 확인땀 한국 귀순 허용 방침</p> <p>- 러시아 정부는 탈출 별목공의 신원이 확인되면 소정의 절차를 밟아 한국 귀순을 허용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짐.</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8.23	<p>0 金泳三 대통령, 통일대비 전문인력양성 지원 지시 * '95년도 예산편성방향 보고</p> <p>- 남북관계가 매우 중요한 시기이므로 이에 관한 전문인력養成을 위해 최대한 支援할 것을 지시</p> <p>0 金泳三 대통령, 北核 특별 사찰 관철 천명 * 美하원 군사위 소속 의원 접견</p> <p>- 북한핵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特別査察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p> <p>- 주한미군은 동북아의 평화유지를 위해 긴요하며 한미간의 긴밀한 협조와 공조로써 북한核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임.</p> <p>0 金泳三 대통령, 『김정일 타도』傳單살포설 관련 신 중대처 언급 * 민자당 초·재선의원 초청만찬</p> <p>- 北韓내 여러가지 상당히 의미있는 움직임이 있음.</p>	<p>0 平壤 외교단지내 김정일 타도 傳單 살포說 * 서울 서방 외교소식통</p> <p>- 8.19 밤부터 20일 새벽사이 平壤 외교단지를 중심으로 '金正日 타도' 내용의 전단지 대량 살포되었음.</p>	<p>0 美 국무부, 평양 외교가의 김정일 타도 傳單 살포설 관련 論評</p> <p>- 현단계에서 우리는 金正日이 평양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어떠한 정보도 갖고 있지 않음.</p> <p>0 獨 외무부 대변인, 平壤외교가 傳單 살포 確認 * 日니혼게이지아 신문 보도</p> <p>- 平壤 외교주택가에서 傳單이 발견된 사실은 있으나, 그 내용은 불분명함.</p> <p>0 日, 9월중 對北수교 예비회담 제의 검토 * 도쿄신문, 日 협상 담당자 발언 인용 보도</p> <p>- 美·北 3단계회담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日·北수교교섭이 재개될 것임.</p>

일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8.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럴때일수록 국민모두가 어떠한 사태에도 對備할 수 있도록 慎重하고 마음이 깨어있어야 할 것임. - 특히 외국공관단지에 전단을 살포한 것은 치밀한 효과를 노리고 한 계획된 행동이며 北韓내 상당한 계층내에 있는 인물들의 행동으로 판단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日本은 교섭재개를 위한 예비회담 개최를 9월중 북한에 제의할 예정임. ○ 알렉산드르 파노프 러 외무차관, 北 경수로 교체시 支援 용의 언급 - 北韓의 경수로 교환에 관한 국제적 재정지원책이 마련될 경우 러시아는 경수로교체를 위한 계획에 參與할 준비가 되어 있음. ○ 러 외무부 대변인, 北 벌목공 처리문제 관련 새로운 林業協定 체결예정 언급 - 러시아는 벌목공문제와 관련한 완전히 새로운 협정을 北側과 조만간 체결할 계획임. - 새 임업협정에는 러시아기준에 맞는 인권보호조항이 포함될 것임.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8.24	<p>0 政府, 북한 탈출 北韓국적자 사안별 구제방침. * 在外國民 정책심의위원회 개최</p> <p>- 인도적·민족화합적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 결정</p> <p>- 불법체류 北韓국적자의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귀순동포보호법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하거나 관련법을 제정키로 결정</p>	<p>0 외교부 대변인, 『을지·포커스렌즈』訓練 비난 談話</p> <p>- 을지·포커스렌즈 합동군사연습은 철두철미 우리를 공격목표로 정하고 진행되는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대규모 지휘훈련으로서 核시험 예비전쟁인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과 마찬가지로 침략적이며 도발적인 전쟁연습임.</p> <p>- 美 군부 보수세력이 남조선 파쇼일당과 함께 우리를 반대하는 군사연습을 벌이는 것은 朝·美 합의정신과 어긋날 뿐 아니라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바라지 않는 적대행위이며 北南對話를 전면 부정하는 군사적 대결소동임.</p> <p>- 미국은 조선반도정세를 긴장시키고 북남대결을 고취하는 도발적인 군사연습과 같은 모든 적대행위들을 하지 말아야 함.</p> <p>0 노동신문, 北 현상황 '매우 어려운 시기' 라고 언급 (正論)</p> <p>0 『韓民戰』창립 45돌기념 평양시 보고회 (청년문화회관) * 참석 : 이종옥, 최태복, 류미영, 염태준, 백남준</p>	<p>0 錢其琛 中외교부장, 북한 權力承繼 지연 異例的인 것으로 평가 * 미쓰즈카 前일본 외상 면담시</p> <p>- 北韓에서 새로운 지도체제가 아직 발표되지 않은 것은 이상한 일임.</p> <p>- 中國 政府도 아직 북한 정부로부터 아무런 情報를 입수하지 못했음.</p> <p>0 北, 동아시아경기대회 平壤 개최 반납 통보 * 日교도통신 보도</p> <p>- '95.9 평양 개최 예정인 제2회 동아시아경기대회의 반납을 관계국 올림픽 위원회에 통보했음.</p>

일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8.25	<p>0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개최</p> <p>< 공보관 브리핑 요지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韓이 과거·현재·미래의 핵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은 南北關係진전이나 美·北關係 개선에 필수요건이라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방침임. · 이를 위해서는 特別查察을 포함한 실질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IAEA와 정부의 입장임. · 北韓의 핵투명성이 보장되어야 앞으로 경수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韓·美 頂上간에 合意된 사항임. - '南北사이에 의미있는 대화'가 재개되는 것이 경수로 지원을 포함한 제반 문제해결의 필요조건임을 확인하였음. - 북한의 權力承繼를 둘러싼 불투명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대해 정부는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상황변화에 계속 慎重히 對處해 나갈 것임 	<p>0 平壤放送, 김영삼 대통령의 남북 우편·통신교류 촉진 표명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과 南이 우편, 통신교류를 하자면 그것을 제도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 함. <p>0 駐러 북한대사 손성필, 특별사찰 거부입장 재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러 친선 및 문화협조협회 연설 - 우리가 경수로나 얻자고 해서 우리의 군사대상을 공개하고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음. <p>0 조선기자동맹, 남한 당국의 主思派 단속 비난 聲明</p>	<p>0 美·北韓 실무접촉 (뉴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회담 일정 협의

일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8.25	<p>0 金泳三 대통령, '갑작스런 통일에 만반의 대비' 지시 * 을지훈련 종합상황실 순시</p> <p>- 김일성 사후 북한은 김정일의 건강문제를 포함해 많은 문제가 있음.</p> <p>- 통일은 언제 어떤 형태로 올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음.</p> <p>- 통일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착실히 해야함.</p> <p>0 朴弘 서강대총장, 主思派 1萬 5千名 각계진출 발언 * 여의도클럽 토론회</p> <p>- '87년이후 사회로 배출된 주사파의 숫자는 약 1만 5천명선임.</p>		
8.26	<p>0 李洪九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金正日 체제 안정 남북관계에 도움 언급 * 관훈클럽 토론회</p> <p>- 남북간 체제경쟁은 북한에 △大勢의 불리 △국력의 불균형 △체제의 불안정이라는 3不현상을 가져다 주었음.</p>	<p>0 平壤放送, 평양 외교가 김정일 타도 전단 살포설 부인</p> <p>- 평양 외교가에 살포된 전단이라고 하는 것은 안기부가 직접 만들어 공중으로 날려 보내고 별이는 모략책동임.</p> <p>0 재북평화통일촉진회·조선종교인협의회, 신공안정국 조성 규탄 聲明 발표</p>	<p>0 이가라시 日 관방장관, 金正日 후계체제 순조 발언</p> <p>- 전체적으로 후계체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특별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지금까지의 전망을 벗어나지</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8.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은 3不현상을 핵개발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韓半島에서의 에너지수급을 포함한 공동번영의 길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함 - 북한軍은 북한내 다른 분야에 비해 앞선 눈을 가지고 있으며 變化의 전위대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봄. - 현시점에서 金正日 체제 안정이 남북관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임. - 북한이 어떻게 남북관계에 협조적이며 긍정적 자세를 보일 것인가에 따라 道德性 문제에 대한 입장도 달라질 수 있음. - 정부는 한국형 경수로가 아닌 경우 재원 마련을 위해 국민을 설득할 수 없으며, 이점을 관련국들에게 이야기했음. - 북한의 核보유가 판명된다면 비핵화 공동선언은 무효가 되며, 정부로서도 새로운 정책방향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임. 		<p>않고 있음.</p> <p>0 獨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차이통紙, 北韓 핵물질 구입시도 증거서류 발견 보도</p> <p>- 독일 수사당국이 지난 5월 플루토늄을 숨겨갖고 있다 가 붙잡힌 무기밀매상에 대한 수사결과 北韓과의 연계를 보여주는 위임장등 관련 증거서류를 찾아냈음.</p>

일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8.26	<p>0 韓昇洙 駐美대사, 한국, 北경수로 지원에 중심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언급</p> <p>*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 클럽 기자회견</p> <p>- 한국 정부는 한국형 경수로로의 對북한 지원참여에 중심적인 역할을 맡게 될 것임.</p> <p>- 북한 핵문제의 해결과정은 韓半島의 평화과정 및 건설적인 남북대화의 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함.</p>		
8.27		<p>0 中央通信, 한국형 경수로 거부 표명</p> <p>- 경수로 제공문제는 철두철미 朝·美사이에 해결할 문제이지 남조선 당국이 나서서 간참할 문제가 아님.</p> <p>- 제3단계 朝·美회담에서 경수로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남조선 경수로 문제는 애당초 안중에도 둔 적이 없음.</p> <p>- 남조선 당국자들은 경수로 문제를 공간으로 朝·美회담에 끼어들어 핵문제 해결과 朝·</p>	<p>0 美, 한반도 유사시 대비 전략 정찰기 SR-71(블랙 버드) 재배치 결정</p> <p>* 日산케이신문 보도</p> <p>-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을 둘러싼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 4년전 퇴역시켰던 SR-71기 3대를 부활시키기로 결정, 95회계년도 국방예산에 1억弗을 계상했음.</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8.27		<p>美관계 개선에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고 北南대결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음.</p> <p>- 동족의 유고에 칼부림으로 대응해 나선 그들이 이제와서 뻔뻔스럽게 경수로를 주겠다느니 어찌겠다느니 하는 것은 우리 인민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임.</p> <p>0 金正日의 '74.8.2 노작 발표 20돌기념 중앙보고회</p> <p>* '당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 강화하여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힘있게 다그칠데 대하여'</p> <p>* 참석 : 강성산, 김영남, 계웅태, 한성룡, 김철만, 최태복, 양형섭, 홍석형, 김기남, 김국태 외 (계웅태 기념보고)</p> <p>0 北韓 올림픽위 사무총장 장웅, 김정일 권력승계 문제 없다고 주장 (파리)</p> <p>- 김정일의 권력승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金正日의 건강은 양호함.</p> <p>- 김정일이 아직 권력의 전면에 나서지 않는 이유는 김일성에 대한 애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임.</p>	<p>0 錢其琛 중국 외교부장, 北核 저지 압력 행사 거부 표명</p> <p>* 도이日 중의원 의 의장 면담시</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8.28		<p>0 中央放送, 金正日 권력승계 이 미 해결 보도</p> <p>* 카프도 前북한주재 소련대사 의 8.23자 프라우다紙 기고문 인용</p> <p>- 조선에서는 정권 계승문제가 원칙적으로 벌써 오래전에 성과적으로 해결되었음.</p> <p>- 당과 국가, 군대의 수위에 추대된 그는 정치, 경제, 사상 등 모든 분야를 영도해 왔으며 또 영도하고 있음.</p>	<p>0 日, 일본형 경수로 개발 추진 계획</p> <p>* 니혼게이지사이신문 보도</p> <p>- 日 통산성은 우수 전기기기 메이커 및 전력회사와 협력, 낮은 가격에 안전성을 높인 일본형 경수로를 '96년부터 개발에 착수, 아시아 각국에 공급할 예정임.</p>
8.29		<p>0 平壤放送, 자본주의 요소 수용엔 사회주의 경제 붕괴 주장</p> <p>* 김일성방송대학 특강</p> <p>- 개인주의에 기초하고 이기주의를 조장시키는 방법은 남조선이나 자본주의 사회에 적용하는 경제관리 방법임.</p> <p>- 사회주의 경제관리에 자본주의 경제관리방법을 끌어들이 다면 사회주의 경제체도가 유지될 수 없고 나중에는 무너지고 마는 것임.</p> <p>0 勞動新聞, 주사파 단속은 反北 대결소동의 일환이라고 비난</p> <p>0 『祖平統』서기국, 남한 당국의 主思派 단속 비난 報道</p>	<p>0 매커리 美국무부 대변인, 한국형 경수로 지원방안 未확정 언급</p> <p>- 경수로 지원문제는 여러 국가가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문제이며, 어떤 특정국가의 경수로 참여가 확정될 때까지는 좀 더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야 함</p> <p>- 美國은 경수로 지원에 대한 사항들을 우방국들과 긴밀히 협의중이며 韓國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이 이 계</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8.29		<p>0 부주석 박성철, 리비아 혁명 25돌 경축행사 참가차 리비아 방문 (8.29~9.10)</p>	<p>획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임.</p> <p>0 사이트 日외무차관, 한국형 경수로 지지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으로 日本의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나, 안전·기술 등 여러가지 면에서 한국형 경수로가 바람직하다고 봄 - 핵문제해결이 日·北 수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이 아니나 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국교 정상화가 이뤄질 수는 없을 것임. <p>0 도리그뱅크 러 아시아센터 소장, 北韓의 중국 의존 심화 언급</p> <p>* 訪北관련 日니혼게이자이신문 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金日成 사후 북한은 모든 분야에서 중국에 의존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8.30	<p>0 韓昇洲 외무부장관, 한국 쉐 경수로 채택 명백 발언 * 국회 외무통일위</p> <p>- 美·北간 합의문에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북한에 지원키로 한 경수로로는 모든 정황으로 볼 때 한국 쉐를 지칭하며, 미국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p> <p>- 美·北 수교를 위해서는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많으며, 핵문제의 전반적 해결과정 및 남북관계의 진전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이뤄질 것임.</p> <p>- 비핵화 공동선언 이행과 美·北관계 개선을 위해서 남북대화는 필수적임.</p>	<p>0 中國, 북한에 軍停委 철수 결정 통보 * 北·中 외교부 부부장(송호경 - 唐家璇) 회담</p> <p>< 9.2字 中央通信 보도 내용 ></p> <p>- 외교부 송호경 부부장은 8.30 중국 외교부 唐家璇 부부장과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보장 체계를 수립하는데서 제기되는 문제와 관련한 회담을 진행하였음.</p> <p>- 쌍방은 현 국제관계의 변화와 조선반도에 조성된 정세의 요구로부터 조선정전협정을 새로운 平和保障體系로 바꿔야 할 절박성에 대해 인정했음.</p> <p>- 특사는 중국측에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할데 대한 제안과 軍停委에서 자기측 대표단을 소환하고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를 협상기구로 내오는 주동적인 대책을 취한 문제에 대해 통보했음.</p> <p>- 中國 정부는 조선측의 요구와 조선측에서 이미 軍停委 조선측 대표단을 철수했으며 軍停委가 실제상 이미 마비된 현 상태를 고려해 軍停委 중국 인민지원군 대표단을 철수하기로 결정했음.</p>	<p>0 美·北韓 실무접촉 (뉴욕) * 전문가회담 일정 협의</p> <p>0 시도렌코 러 核에너지부 차관, 北韓에 최신형 경수로 제공용의 표명 * 이타르 타스 통신 회견</p> <p>- 러시아 정부는 잠재적 판매자의 자격으로 北 원자로 교체문제 해결에 참여하고 있으며, 북한에 3基의 최신 쉐경수로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음.</p> <p>0 키에트 베트남총리, 韓半島 비핵화 지지 표명 * 韓·베트남 총리회담 (하노이)</p> <p>- 한국의 평화통일정책을 높이 평가하고 지지하며, 한반도 비핵화 문제도 아시아 및 세계 평화를 위해 필요하므로 지지함.</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8.30		<p>0 노동신문, 金泳三 대통령의 '갑작스런 통일 대비' 지시 강경 비난 (論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히 우리에게 선불질을 한다면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 - 외세와 야합해 조선반도에서 새 전쟁의 불을 지르려는 흉심을 드러낸 것임. <p>0 金平一, 김정일 추대 대규모 집회 곧 개최 언급</p> <p>* 핀란드 언론인과 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도기간에 대규모 군중집회를 여는 것은 바람직한 처사가 아님. 대규모 선출모임이 곧 있을 것임. - 어떤 경우에도 나의 아버지가 택한 길을 계속 갈 것이며, 金正日이 이를 지도할 것임. <p>0 김정일 노작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발표 10돌 기념 연구토론회 (인민대학습당)</p> <p>* 참석 : 최태복, 최기룡</p> <p>0 외교부 부부장 송호경, '정부 특사' 자격으로 中國 방문 (8.30~9.3)</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8.31	<p>0 金泳三 대통령, 임기內 통일기반조성 이룩 언급 * 확대경제장관회의 주재</p> <p>-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임기중에 반드시 統一基盤 조성과 선진경제 실현을 위한 발판이 이룩될 것임</p> <p>0 李洪九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美·北 연락사무소 개설 대비책 강구 언급 * 民自黨 당무회의</p> <p>- 美·北간 연락사무소는 기능적 측면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나 상징적 의미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여러가지 대비책을 신중히 세워나가겠음.</p> <p>- 美國과 北韓간의 관계개선 속도를 우리가 적절히 조절할 수 있도록 하겠음</p> <p>0 李洪九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민족에너지 차원서 경수로 지원' 언급 * 통일정책 워크샵</p> <p>- 北韓에 대한 경수로 지원은 민족발전 공동계획의 일환이며 민족에너지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임.</p>	<p>0 駐핀란드 북한대사 金平一, 北 권력승계 이상없다고 발언 * 한국기자들과 회견</p> <p>- 金正日의 건강에는 아무 문제 없음.</p> <p>- 김정일 주석직 승계는 애도기간이 끝나면 하게 될 것임. 정해놓은 애도기간은 끝났지만 우리 인민들이 아직 애도기간으로 여기고 있어서 會議는 바쁘지 않음.</p>	<p>0 美·北 실무접촉 결과 발표</p> <p>- 2개 전문가회의를 각각 9.10부터 열기로 합의했음.</p> <p>- 平壤 전문가회의는 양국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 문제를 토의할 것임.</p> <p>- 베를린 전문가회의는 경수로건설 지원, 대체에너지 지원, 寧邊 5MW 원자로에서 인출한 폐연료봉의 보관·처리문제 등을 다룰 것임.</p>

■ 8 월

일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8.31	<p>0 韓昇洲 외무부장관, 日·北 조기 수교 가능성 언급</p> <p>* 21세기 경영인클럽 특별 강연</p> <p>- 북한은 외교적 고립 탈피를 위해 미국과의 관계가 진전되면 곧바로 日本과의 수교교섭과 經協을 적극 추진하게 될 것임.</p> <p>- 실제로 북한의 對日수교는 對美수교보다 먼저 이루어질 지 모름.</p> <p>- 북한의 對日수교 및 경협에 대한 관심을 북한의 개방과 변화를 유도하는데 연계, 활용할 수 있도록 日本과 협조체제를 유지·강화할 필요가 있음.</p>		<p>0 日, 2차대전 종전 50주년 즈음 '평화우호교류계획' 발표</p> <p>* 무라야마 日수상 명의 談話</p> <p>- 과거에 대한 반성으로 '95년부터 10년간 피해국인 아시아 각국과 청소년 교류, 역사자료센터 설립 등을 위해 10억달러 규모의 '평화우호교류계획'을 추진함.</p> <p>-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개별적 보상은 하지 않음.</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9. 1		<p>0 입북자 허종만 환영 평양시 군중집회 (중앙노동자회관) * 참석 : 백남준, 김영남(직총부위원장), 신안방(평양시 행정경제위 부위원장) 외</p> <p>0 黨·政 고위간부, 새학년도 맞아 김정일 출신교 (平壤 제4인민학교) 방문 * 참석 : 강성산, 장 철, 박남기</p> <p>0 제15차 민족통일을 위한 범해외동포학자들의 토론회 (9.1~3, 워싱턴 메릴랜드大) - '1995년과 조국통일' 주제로 최정태, 선우학원, 램지 클라크 등 미주지역내 친북인사 참가</p>	<p>0 신화통신, 中, 북한에 군정위 철수결정 통보 보도 - 唐家璇 중국외교부 부부장은 송호경 북한 외교부 부부장과 회담에서 軍停委 철수 결정을 통보했음.</p> <p>- 양측은 국제정세 변화와 한반도의 현 상황에 맞는 새로운 평화보장체제가 마련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음.</p> <p>0 英 군사전문가, 北 『대포동 1호』 미사일 '96년 實戰배치 전망 * 조세프 버뮤즈 英 제인연감 상담역</p> <p>- 북한은 사정거리 1천5백km~2천km의 장거리미사일 大浦洞 1호를 96년에, 大浦洞 2호는 2000년에 실용화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됨.</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9. 1			<p>0 錢其琛 中외교부장, 한반도에서 점진적 평화체제 전환 기대 * 北외교부 부부장 송호경 면담</p> <p>- 조선반도에서 점차 새로운 평화보장체계가 수립되기를 바람. 이 문제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에 중요한 관건임.</p> <p>0 마이어스 美백악관 대변인, 平壤 전문가회담의 의미 축소</p> <p>- 이번 전문가회담이 연락사무소 개설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님.</p> <p>- 외교적 대화가 아니라 기술적인 회담임.</p> <p>※ 매커리 대변인도 '상징적인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언급</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9. 2	<p>0 외무부 대변인, 중국의 軍停委 철수 결정 관련 유감 論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中國 정부가 군정 위외의 자국 대표단을 소환키로한 데 대하여 遺憾스럽게 생각함. - 현재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관련국간 협의가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결정을 한 것은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못함. - 政府는 중국측의 이번 결정이 현 정전협정체제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함. - 南北기본합의서에 따라 남북한 쌍방 합의에 의한 평화체제가 구축될 때까지 현 정전협정체제가 계속 유지되고 준수되어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임. <p>0 駐韓 UN사령부, 북한에 정전협정 유효 입장 전달 * UN司 軍停委 비서장 슈메이커 대령 - 북한측 박임수 대좌 접촉</p>	<p>0 외교부 대변인, 美·北 전문가 회담 개최 일정 발표 (報道)</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12 朝·美 합의성명에 따라 요즘 진행된 뉴욕 실무접촉에서는 전문가급 협상들을 시작하기 위한 문제들을 토의하였음. - 쌍방은 연락사무소 문제와 관련한 전문가급 협상을 9.10 평양에서, 경수로 제공 및 보상문제와 관련한 전문가급 협상을 9.10 베를린에서 각각 시작하기로 합의하였음. <p>0 외교부 대변인, 일본의 戰後 50돌즈음 수상 담화 발표 관련 記者會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이 저지른 과거 죄행을 그무슨 '평화우호교류계획'과 같은 허울좋은 보자기를 씌워 청산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음. - 일본 당국이 과거 청산문제를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절대로 허용될 수 없음. - 더우기 우리를 제쳐놓고서는 그 어떤 전후처리에 대해서도 말할 수 없음. 	<p>0 美 국무부, 中國 군정위 철수 유감 聲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軍停委가 한반도 평화실현에 지속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함. - 중국의 결정은 자국의 대표단을 비무장지대로부터 소환하는 것이지 철수하는 것은 아님. - 北京측은 한반도 정전협정을 계속 인정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음. <p>0 中외교부 대변인, 中國 정전협정 유효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전협정은 이 협정의 관련조항들에 따라 여전히 유효하며 北韓측도 이 협정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음.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9.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전협정을 체결당사자인 유엔시, 중국, 북한 3자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음. - 중국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전협정체제는 유효함. ○ 駐韓 UN사령부, 중국의 정전위 철수 결정 관련 聲明 - 중국의 이같은 결정으로 UN司와 북한간의 사소한 충돌이 심각한 국면으로 비화될 위험이 높아졌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日 요미우리신문, 北지원 경수로, 독 일製 가능성 보도 - 북한의 核동결을 대가로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경수로 는 한국형도, 러시아형도 아닌 독 일製로 하는 방안 이 급부상하고 있음. ○ 日 마이니치신문, 日·北, 8월말 北京에서 修交관련 극비 접촉 보도 - 日정부는 8월하순 北京에서 북한측과 국교정상화회담 재 개를 위한 극비 예 비접촉을 가졌음. ○ 香港誌, 北韓 지난 5월 전쟁 위협 보도 * 『九十年代』誌 - 북한은 5월 중국에 특사를 보내 전쟁 을 개시하겠다고 위협했으며 中國이 이를 만류했다고 보도

일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9. 3	<p>0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개최</p> <p>< 공보관 브리핑 요지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사찰문제, 경수로 건설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음. - 韓半島 정전협정을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는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된 南北 당사자원칙에 따라 해결해 나갈. - 현재 韓·美 양국은 정전협정이 계속 유효하다는 원칙에 입장을 같이하고 있으며, 中國도 같은 입장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p>0 金正日, 부주석 박성철 통해 가다피 리비아 국가원수와 인사교환</p> <p>* 사실상 主席 업무 수행 시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단 단장은 金正日이 보내는 인사를 전했으며, 가다피는 이에 사의를 표시하고 김정일에게 만수축원의 인사를 전할 것을 부탁했음. - 가다피는 金正日이 경축행사에 높은 급의 정부대표단을 보내준데 대해 사의를 표한다고 말했음. 	<p>0 中·러 정상, 美·北회담 진전 환영</p> <p>* 모스크바 정상회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中·러 정상은 美國과 북한간의 회담이 진전을 이룩한데 대해 환영을 표시
9. 4		<p>0 中央放送, 시아누크의 김정일 '수령' 호칭 祝電 공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韓 창건 46돌 즈음 8.31 보낸 축전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首領이신 김정일 원수 각하' 라고 호칭한 내용 보도 	<p>0 日교도통신, 북한軍 김정일 배지 부착 보도</p> <p>* 北京 동유럽 군사 소식통 인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국경경비대 장교들이 金正日 배지를 달기 시작, 그의 권력 공식 승계가 임박했음을 시사하고 있음.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9. 5	<p>0 李基澤 민주당 대표, 對北 정책 재검토 촉구 특별메시지 발표</p> <p>- 對北화해정책 추진, 남북 정상회담 조기 개최 분위기 조성, 민간차원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등 5개항의 정책방향 제시</p>	<p>0 黨·政 간부들, 金正日 지시로 연백별 협동농장 참관(9.5~6)</p> <p>* 참석 : 강성산, 이종옥, 김영주, 김영남, 최 광, 계응태, 한성룡, 김철만 외</p>	<p>0 北, IAEA에 사찰범위 확대방침 통고</p> <p>* 9.10日 日요미우리 신문</p> <p>- 북한에 체류중인 2명의 사찰단에 신고시설에 대한 사찰확대방침 통보</p>
9. 6	<p>0 李炳台 국방부장관, 북한 난민 발생 대책 마련 언급</p> <p>* 기자간담회</p> <p>- 한반도 안정을 위해서는 北韓 내부 혼란보다는 김정일체제로의 권력승계가 순조롭게 이뤄지기를 기대함.</p> <p>- 북한으로부터 보트 피플 등 難民 발생에 따른 대책도 마련해놓고 있음.</p> <p>- 지금까지 정전협정체제 유지에는 변함이 없음.</p>	<p>0 平壤放送, 통일후에도 '사적 소유 인정' 강조</p> <p>-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적 재산, 사회적 명예, 자격의 인정성 때문에 의구심과 우려를 가지고 통일을 방관하거나 지어 통일을 달가워 하지 않는 사람도 없지 않음.</p> <p>-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에서는 통일이 된 후에도 통일되기 전에 北과 南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所有들을 인정하고 개인 또는 단체의 자본과 재산을 보호하며 그것을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데 이용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밝혔음.</p> <p>0 후카다 日사회당 의원 일행, 訪北 (9.6~9.10)</p> <p>* 김일성 사망후 일본 의원으로서서는 최초 방문</p>	<p>0 鄭淵珠 한겨레신문 기자 訪北(9.6~10)</p> <p>* 북한측 취재불허로 귀환</p> <p>0 만국우편연합(UPU) 제21차 총회(8.22~9.14), 南北우편교류 촉구 결의 채택(서울)</p> <p>- 남북한이 가능한한 빨리 우편물 교환을 실시할 것을 촉구하며, UPU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함.</p> <p>0 韓·日 의원연맹 제22차 총회, 과거 核투명성 보장돼야 경수로 지원 내용의 共同聲明 발표(도쿄)</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9. 7	<p>○ 韓·美외무장관, 남북관계 개선과 美·北관계 개선 상호보완 추진 합의 (워싱턴)</p> <p>< 韓昇洲 장관 발표 요지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락사무소 교환 등 美·北관계개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남북대화의 진전이 긴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음. - 북한에 경수로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韓國의 중심적 역할이 필수불가결하며, 이를 위해 한국형 경수로가 제공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음. - 경수로 지원이 있기 위해서는 北韓이 남북대화 진전과 특별사찰 등을 통한 核 투명성 확보에 성의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었음. - 韓·美 양측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가 기존 합의에 따라 남북한간에 협의·해결될 사안이며 美·北간 협상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음. 	<p>○ 拉北 고상문, 金泳三 대통령 비난 글 발표 (中·平放)</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나절이면 와당을 평양에 조문사절 몇사람조차 보내지 못하는 김○○이 北南대화과 교류에 대하여 떠들고 있으니 가소롭기 이룰데 없음. - 제발로 北을 찾아온 의거자들을 납치했다고 떠들고 시퍼렇게 살아있는 의거자를 자살했다고 낭설을 내돌린 자도 바로 김○○ 자신임. - 남녘의 동포들이 김○○ 역도의 무덤길을 재촉하여 과감히 분투함으로써 조국통일을 앞당겨나갈 것을 호소함. 	<p>○ 크리스토퍼 美 국무장관, 韓·美외무장관회담 결과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 과거핵활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에 부응할 경우에만 경수로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음. - 과거 核활동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지 않는한 NPT下의 안전조치협정을 이행할 수 없을 것임. - 보다 정상적인 정치·경제적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핵문제에 있어서 추가적 진전과 더불어 남북관계 개선에 진전이 있어야 할 것임. - 북한이 한국과의 실질적인 대화를 재개하지 않는 한 核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힘. <p>○ 갈루치 美 국무차관보, 남북관계 개선</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9.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한간 합의에 의한 평화체제 구축시까지 현 정 전체제가 준수되어야 하고 이를 저해하는 어떠한 조치에도 반대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음. ○ 李洪九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韓·美간 北核문제 관점 차이 언급 * 기자간담회 - 우리는 전반적인 남북관계를 푸는 관점에서 북핵문제를 보고있는 반면, 美國에서는 핵문제 자체에 초점을 국한하여 보는 경향이 있음. - 북한이 南北당사자 원칙을 존중하는 입장으로 나오게 될 경우 현재의 국면전환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우리도 협조할 용의가 있음. - 美·北 연락사무소 설치에는 의미있는 남북대화의 재개, 특별사찰을 포함한 실질적 조치 등 2가지 사항이 모두 연계되는 것이 바람직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北에 강요못한다고 언급 * 기자회견 - 美·北관계 개선이 남북관계 개선과 상호 연계돼야 한다는 것은 韓·美의 공통인식이지만 협상테이블에서 미국이 北韓에 중요성을 강조할 수는 있어도 강요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中, 對북한 식량·석유 원조 확대 * 중국 흑룡강방송 보도 - 金日成 사후 중국은 북한에 대한 원조를 늘릴 결의를 채택하고 양곡·석유의 공급량을 증가시켰음.

일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9. 8	<p>0 金泳三 대통령, 클린턴 美 대통령에게 美·北관계 개선 속도 우려 전달</p> <p>* 韓昇洲 외무부장관 통해 구두메시지 전달</p> <p>- 남북관계의 진전과 美·北 관계의 개선이 조화롭게 추진되어야 우리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수 있음</p> <p>- 북한 核의 과거 규명을 위해 특별사찰을 포함한 실질적인 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임.</p> <p>0 北韓 유학생 등 5명, 제3국 통해 귀순</p> <p>- 홍금수(중국 심양 동북공학원 3학년 재학)씨 등 5명</p> <p>0 金宇中 대우그룹 회장 6, 7월 극비 방북說</p> <p>* 한겨레신문 보도</p> <p>- 金宇中 대우그룹 회장이 김일성 사망전인 6월 중순과 7월 초순 두차례 북한을 비밀리에 방문한 것으로 밝혀졌음.</p>	<p>0 黨·政 간부들, 金日成 사망 2달 추모 회환진정 (만수대 김일성 동상)</p> <p>* 참석 : 강성산, 이종옥, 김영주, 김병식, 김영남, 최 광, 계응태, 한성룡, 김철만, 최태복, 최영림, 홍성남, 양형섭, 홍석형, 백학림, 김봉률, 김광진 外</p> <p>0 美·北전문가회담 북측대표단, 베를린 도착</p> <p>* 단장 : 김정우 (대외경제위원회 부위원장)</p> <p>< 도착 성명 ></p> <p>- 이번 회의에서 미국측의 경수로 지원과 대체에너지 제공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임</p> <p>- 생산적인 회담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美國측도 적극 호응해줄 것을 희망함.</p> <p>0 노동신문, 자본주의국가와 우호 수립 언급 (社說)</p> <p>- 앞으로 북한에 우호적이고 상응한 대우를 하는 자본주의 국가와도 우호관계를 수립하고 경제·문화관계를 발전시킬 것임.</p> <p>0 『朝總聯』의장 한덕수, 김정</p>	<p>0 江澤民 중국 국가주석, 북한 창건 46돌 즈음 김정일에 祝電</p> <p>- 조선인민이 당신을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위원회에 굳게 단결하여 金日成의 생전의 뜻을 이어 사회주의 혁명과업 건설에서 승리적인 전진을 이룩하고 있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보고 있음.</p> <p>- 中·朝친선은 온갖 시련을 이겨냈으며 반드시 대를 이어 전해지고 끊임없이 발전될 것임.</p> <p>0 갈루치 美 국무부 본부대사, 특별사찰 문서검증으로 가능 시사</p> <p>* 카네기 평화재단 주최 간담회</p> <p>- IAEA가 북한 과거 핵활동 규명에 충분한 효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현장검증을 생략한채 文書 검증만으로도 특별사찰이 실시된</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9. 8		<p>일에 충성 촉구 글 발표</p> <p>* '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을 충효 일심으로 받들어 주체조국을 온 세상에 빛내어 나가자 ' (조선신보)</p>	<p>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가능함.</p> <p>- 북한 내부의 심각한 정치문제가 되고 있는 특별사찰 실시가 즉시 이행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님.</p>
9. 9		<p>0 北韓 창건 46돌 경축 중앙보고 대회 (2.8 문화회관)</p> <p>* 참석 : 강성산, 이종옥, 김병식, 한덕수, 배병두 外</p> <p><부총리 홍성남 경축보고 요지></p> <p>- 金日成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 완성하기 위해서는 김정일의 영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야 함.</p> <p>- 농업 제일주의, 경공업 제일주의, 무역 제일주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함.</p> <p>- 우리나라 統一은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지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3大원칙과 전민족대단결 10大강령을 구현하여 聯邦制 방식의 통일방안에 따라 실현되어야 함.</p> <p>- 모든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金正日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p>	<p>0 페리 美 국방장관, 한반도 비핵화 관철 강조</p> <p>* 베를린 기자회견</p> <p>- 우리는 한반도에 핵무기나 핵무기 개발시설이 전혀 없기를 바람.</p> <p>- 美國은 이 문제에 대해 타협하지 않을 것임.</p> <p>- 미국은 韓半島 비핵화 목표 실현을 위해 북한측이 수용할 수 있는 제안을 모색하고 있음.</p> <p>0 獨 노이에스 도이칠란트紙, 北·獨 대사급 수교 가능성 보도</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9. 9		<p>당중앙위원회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철통같이 뭉쳐야 하며 당과 혁명대오가 혼연일체를 이룬 우리의 一心團結을 눈동자같이 지켜나가야 함.</p> <p>0 외교부 대변인, 美·北회담에서 평화협정 토의 주장 談話</p> <p>- 朝·美회담에서 평화협정체제 문제를 토의하고 합의보는 것은 현시기 당면하고 절박한 문제중 하나임.</p> <p>- 정전협정 당사자도 아니고 자기 군대에 대한 통수권도 가지고 있지 못한 남조선 당국자들만은 새로운 평화보장체제 수립을 한사코 반대하고 있음.</p> <p>- 남조선 당국이 아무리 반대한다고 해도 조선반도에서 새로운 평화보장체제는 반드시 수립될 것임.</p> <p>0 金正日, 『朝總聯』에 교육원 준비와 장학금 1억엔 송금</p> <p>* 중앙방송 보도</p> <p>※ 현재까지 총 128회, 421억 1,299만 2,433엔 송금 주장</p>	<p>- 美·北 베를린 전문가회담을 계기로 현재의 北韓 이익 대표부가 대사관으로 승격할 가능성이 높아졌음.</p> <p>0 中, 북한인 탈출대비 국경통제 강화</p> <p>* 이타르 타스통신 보도</p> <p>- 중국은 최근 북한인들의 탈출사태가 급증하자 북한과의 국경선 일대에 수비대와 정규군을 증강 배치, 국경통제를 강화했음.</p> <p>0 모이세예프 러 외무부 한반도 담당관, 對북한 관계강화 의사 표명</p> <p>- 러시아는 북한과의 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종전의 전통적 협력보다 더욱 밀접한 관계발전을 이루는데 관심이 있음.</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9. 9		<p>0 黨·政간부들, 북한 창건 46돌 즈음 대성산혁명열사능에 화환 진정</p> <p>* 참석 : 강성산, 김영남, 계응태, 김철만, 홍성남, 양형섭, 홍석형, 백학림, 김광진, 김기남, 김중린, 공진태, 박남기, 전문섭</p> <p>0 노동신문, 金正日 중심의 일심단결 주장</p> <p>* 북한 창건 46돌 즈음 社說</p> <p>- 우리는 김정일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노동자같이 고수하여야 하며 전당과 온사회에 김일성과 김정일의 혁명사상만이 차 넘치게 하여야 함.</p> <p>- 인민정권안에 당의 영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고 정권 건설과 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철두철미 당의 영도밑에 풀어나가야 하며 정권으로서의 혈통을 대를 이어 고수해 나가야 함.</p>	<p>0 日 마이니치신문, 北, 독일제 경수로 도입 희망 보도</p> <p>* 駐베를린 北韓이의 대표부 직원 언급</p> <p>- 북한이 희망하고 있는 것은 독일제 경수로임.</p> <p>0 中 신화통신, 北, 방글라데시에 쌀 3천 7백달러 어치 수입 타진 보도</p> <p>- '95년중 求償貿易 형식으로 3천 7백 달러 상당의 쌀을 공급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음.</p>
9.10	<p>0 李洪九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北韓 평화협정 주장 관련 전쟁책임 거론 경고</p> <p>* 국회 ROTC 출신의원 모임 초청 간담회</p> <p>-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은 전쟁종결</p>	<p>0 美·北 전문가회담 개최</p> <p>- 평양 회담 (9.10~13)</p> <p>· 린 터크(美국무부 한국과 副과장) 참석</p> <p>· 연락사무소 교환·설치문제 협의</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9.10	<p>을 의미, 전쟁의 책임문 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북 한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반드시 그들에게 유 리한 것만은 아님.</p> <p>- 평화협정 전환문제가 미 국에서 공식 제기될 경우 전쟁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해 얘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음.</p> <p>- 전쟁책임에 대해서는 그 동안 북한에 대단히 불리 한 증거들이 많이 축적돼 있으니 만큼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님.</p> <p>○ 한국형 경수로 『영광 3호 기』, 핵연료 장전 시작</p> <p>* 1백만kw 용량의 가압형 경수로로 89년 6월 건설 에 착수(국산화율 90%)</p>	<p>- 베를린 회담 (9.10~14)</p> <p>· 세이모어(美 국무부 核非확산 국 副과장), 김정우(北 대외 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참석</p> <p>· 경수로 지원문제 협의</p> <p>○ 외교부 대변인, 독일에서의 연 합군 철수관련 記者會見</p> <p>- 우리는 구라파에서 냉전시대 의 마지막 章을 끝내기 위해 기울인 독일과 그 유관국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함.</p> <p>- 우리 공화국정부는 시종일관 다른 나라 영토에 있는 외국 군대와 외국 군사기지들의 철 수를 주장해왔음.</p> <p>- 조선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 아지역에서도 냉전시대의 낡 은 국제관계가 하루빨리 제거 되어야 할 것임.</p> <p>○ 부주석 박성철, 리비아 방문 마치고 귀국 (8.29~9.10)</p>	
9.11		<p>○ 中央放送, 美·北 평양 전문가 회담 개최 보도</p> <p>- 두 나라 사이에 연락사무소를 교환 설치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외교부 대표단 과 美 국무성 대표단 사이의</p>	<p>○ 크리스토퍼 美 국무 장관, 北韓 폐연료 봉 제3국 이전 관철 표명</p> <p>* NBC-TV 대담</p> <p>- 북한이 寧邊 원자</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9.11		<p>전문가급협상이 9.10 平壤에서 시작되었음.</p>	<p>로에서 빼낸 폐연료봉을 북한밖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 美國의 일관된 입장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같은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북한이 보관하되 강철통에 넣어두는 방안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임.
9.12		<p>○ 美·北 베를린 전문가회담 계속</p> <p>○ 美·北 베를린 전문가회담 북측 수석대표 김정우, 경수로 선정 관련 3가지 조건 제시</p> <p>* 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의 입장에서는 △안전하고 △수출실적이 있으며 △성능이 검증된 경수로를 원함. <p>○ 체신부장 김학섭, 드 바로스 만국우편연합(UPU) 사무총장의 우편교류 촉구 편지 관련 회담 便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조선에는 우리 공화국과 북반부 인민을 반국가단체·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 규정하고 北南사이에 접촉과 서신, 	<p>○ IAEA 정기이사회 개막 (빈)</p> <p>* 北核 토의 『의장 요약성명』 채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안전조치협정은 북한의 IAEA탈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하며 완전히 이행되어야 함. - 최근 美·北회담에서 나타난 부분적 진전을 고무적인 것으로 평가함. - 현재 진행중인 대화가 건설적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함.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9.12		<p>통신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상 北과 南사이에 편지거래는 그 누구의 중재도 필요 없는 문제임. - 선생이 北南 서신거래문제에 대하여 도움을 주려 한다면 남조선의 國家保安法이 철폐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함. <p>○ 平壤放送, 한반도에서 핵위협장본인은 南韓이라고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조선에서 핵무기 개발은 연구단계가 아니라 실천 완성단계에 이르고 있음. - 오늘 조선반도에서 핵위협의 실제적 장본인은 남조선 괴뢰들임. - 남조선 통치배들은 누구의 과거 핵투명성 보장 운운할 것이 아니라 남조선에서의 과거 핵무기개발 실상을 공개하고 핵무기 개발을 지체없이 중지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블릭스 IAEA 사무총장, 北, 2개 核시설 사찰 허용 확인 * IAEA 이사회 보고 - 북한에 체류중인 2명의 사찰단이 9.5 북한측으로부터 신고시설에 대한 사찰확대방침을 통보 받고 우선적으로 연료제조공장과 신규 연료저장창고를 방문했음. - 폐연료봉들이 아직 재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믿어지지만 원자로에 새로운 연료를 장입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음. ○ 매커리 美국무부 대변인, 평양 전문가 회담 진전 언급 - 平壤 실무자 협의는 협조적이고 진지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共同聲明이 발표될 가능성이 있음. - 美·北 연락사무소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9.12			<p>교환 개설은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 핵문제의 전반적인 해결이 있어야 실시될 수 있음.</p> <p>0 北, 독일 지멘스社에 경수로 관련 자료 요청</p> <p>* 지멘스社 대변인</p> <p>- 駐베를린 북한대표부가 독일 콘보이(KONVOI)型 경수로의 자료를 요청해와 제공했음.</p>
9.13	<p>0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개최 (9.13)</p> <p><李洪九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기자간담회 요지></p> <p>- 韓昇洲 외무장관의 訪美에서 미국측에 핵문제는 전반적인 남북관계의 틀 속에서 해결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정부 입장을 강조하였음.</p> <p>- 9.23 美·北 3단계 2차회담에서 핵문제 해결의 긍정적 진전에 따라 남북간 인적 왕래, 경협문제 등 현안문제도 단계적으로 진전될 것이며, 政府에서</p>	<p>0 美·北 평양 전문가회담 종료 (9.10~13)</p> <p>< 연락사무소 개설에 관한 朝美 전문가급협상 진행정형에 대한 공동보도 ></p> <p>- 쌍방은 전반적인 합의의 테두리내에서 연락사무소 교환 설치와 관련될 수 있는 구체적인 실무문제들을 토의하였음.</p> <p>- 협상은 진지하고 협조적인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었음.</p> <p>- 쌍방은 연락사무소 개설에 관한 협상결과를 각기 자기 정부에 보고하기로 하였음.</p>	

일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9.13	<p>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韓의 권력승계문제가 종결되면 모든 차원의 남북회담에 긍정적인 자세로 임할 것임. '남북정상회담 합의' 원칙은 계속 유효함. - 한국형 경수로라는 명칭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인가에 일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경수로의 명칭만을 거론하는 것은 생산적이지 못함. - 한국표준형 모델을 지원하게 될 경우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며 재원부담에 있어서도 중심적 역할을 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입장임. - 남북대화가 진전되지 않으면 美·北 연락사무소 설치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게 현재의 상황이며, 美國 정부도 같은 입장이라고 봄. 	<p>0 北韓, 실종 美軍 유해 14구 UN軍측에 인도 (판문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은 9.2 판문점 반환실무단 공동의장 접촉에서의 합의에 따라 한국전 당시 사망했거나 실종된 UN軍 유해14구를 판문점에서 UN군사령부측에 인도 <p>※ '90년이후 현재까지 총 208 구 인도</p> <p>0 제네바 대표부 공사 한창언, NPT 무수정·무기연기 반대 입장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PT 연장검토 제5차 회의 준비 제3차 회의 (9.12~16, 제네바) - NPT가 핵무기 소유국과 비핵국이 똑같은 의무를 가지는 평등조약으로 되게 하고 인류를 核참화의 불안감에서 해방시키자면 비핵국가들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수정되어야함 <p>0 존 사무엘 탄자니아 수상, 북한 방문 (9.12~1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접 : 강성산, 황장엽, 공진태, 이성대, 김영일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9. 14	<p>0 李洪九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북한에 拉北者 조속 송환 촉구</p> <p>* 제13회 이산가족의 날 격려사</p> <p>- 북한이 우리와 함께 평화와 번영의 길을 걸어 나 갈 진정한 의사가 있다면 최우선적으로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400여 남북자들을 인도주의 차원에서 하루속히 가족들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함.</p> <p>- 우리는 북한이 이산가족 문제를 비롯한 남북관계 개선에 성의있는 태도를 보인다면 북한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모든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p> <p>0 李基澤 민주당 대표, 남북 정상회담 先제의 촉구</p> <p>- 이제 대승적차원에서 남북한 신뢰구축과 화해를 위해 먼저 우리측이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제의해야 함.</p> <p>0 일천만이산가족재회추진위원회, 이산가족 재회촉구 결의문 채택</p>	<p>0 美·北 베를린 전문가회담 종료 (9.10~14)</p> <p>< 朝·美 전문가급협상에 대한 공동보도문 ></p> <p>- 쌍방은 흑연감속로계획을 경수로 기술로 교체하는 문제, 폐연료의 안전한 보관 및 처분, 대용 에너르기 보장을 포함하여 복잡한 실무적 문제들을 토의하였음.</p> <p>- 쌍방은 포괄적이며 허심탄회한 토의를 진행하였으며 朝·美는 이 문제들을 앞으로 더 토의하기로 합의하였음.</p> <p>- 쌍방은 이번 협상결과를 자기 정부들에 보고하기로 하였음.</p> <p>0 정무원 부총리 강성산, 金正日을 '위대한 영도자'로 호칭</p> <p>* 존 사무엘 탄자니아 수상 환영 연회 연설</p> <p>- 문무총효를 겸비하시고 인민의 지도자로서의 천품을 지니신 '위대한 영도자' 金正日 동지는 오늘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전반 사업을 현명하게 영도하고 있음.</p>	<p>0 갈루치 美국무차관보, 北 경수로 지원 40억弗 소요 언급</p> <p>* 東京 기자회견</p> <p>- 북한의 경수로 지원은 최종적으로 40억弗 규모가 될 것임.</p> <p>- 美·北 교섭이 진전된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관계국들이 참여하는 국제적인 지원체제를 만들고 싶음.</p> <p>- 북한 경수로는 정치·경제·군사적으로 신뢰성이 높은 것이 요구되며 최선의 모델은 한국형임.</p> <p>0 갈루치 美국무차관보, 특별사찰 관철 강조</p> <p>* 日NHK-TV회견</p> <p>- 과거 핵개발의혹에 대한 규명을 보류한 채 북한과 다른 사안으로 부분적인 합의를 도출하려 하지 않을 것임.</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9. 14	<p>* 남북이산가족 재회촉구 범세계 서명운동 1,700만 명 달성 보고대회</p> <p>- 이산가족재회가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실현하는 첩경임을 천명함.</p> <p>- 이산가족들의 가족재회와 고향방문이 즉각 실현될 수 있도록 남북한 당국은 앞서서 해결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촉구함.</p> <p>- 서신교환과 더불어 이산가족면회소를 설치하여 혈육상봉이 조기에 성사될 수 있도록 호응해 줄 것을 북한당국에 촉구함.</p> <p>- 북한 억류 납북자들의 무조건 송환을 촉구하는 범국민 운동을 적극 전개할 것을 제의함.</p>	<p>0 平壤放送, '84 수재물자 제공은 김정일 지시라고 선전</p> <p>- 구제물자들은 약 1,800만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으로 천 50만m, 쌀 5만석, 시멘트 10만t에 이르는 방대한 물자였음.</p> <p>- 이는 분열의 장벽때문에 쌓아두고도 주지못한 뜨거운 사랑을 남녘동포들에게 안겨주려는 金正日의 고결한 인간애, 동포애의 승고한 결정체임.</p> <p>0 『韓民戰』중앙위, '한국형 경수로 진상공개장' 발표</p> <p>* 9.15字 平壤放送 보도</p> <p>- 울진 3, 4호기에 한국형 경수로라는 이름을 붙였으나 국제적으로 등록된 바도, 공인된 바도 없는 일종의 사기협잡품임.</p> <p>- 한국형 경수로란 새로 개발된 원자로형이 아니라 北의 경수로 도입이 北·美협상에서 당면한 현안문제로 제기된 것과 때를 같이하여 생겨난 일종의 정치용어에 불과함.</p>	<p>- 북한이 특별사찰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UN에서 관계국들과 함께 대북제재를 협의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임.</p> <p>0 軍停委 중국군측 대표, 본국으로부터 철수명령 未접수</p> <p>* 정부소식통</p> <p>- 9.13 UN군 유해송환 행사에 모습을 보인 중국군 장교들은 본국으로부터 철수명령을 받은바 없다고 밝혔음.</p> <p>0 IAEA, 北 플루토늄 은닉 의심</p> <p>* IAEA 관리 발언</p> <p>- IAEA는 북한이 지난해 2月이후 핵연료 재처리를 중단한 것으로 보고있으나 아직도 플루토늄을 은닉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음.</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9.15	<p>0 李洪九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남북관계 진전없이 美·北연락사무소 개설 반대 입장 표명</p> <p>* 갈루치 美국무차관보 접견</p> <p>- 남북관계 진전없이 美·北 연락사무소 개설 논의는 문제해결에 도움이 안 되므로 적절한 속도조절이 필요함.</p> <p>- 對北지원 경수로는 韓國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동의하는 사안임.</p> <p>- 평화협정 체결문제는 美北간 논의할 시기가 아니고 과제도 아님.</p> <p>- 북한의 과거 核투명성 확보는 기본적 필수요건임.</p> <p>0 韓·美, 핵문제 관련 고위 실무협의</p> <p>* 金三勳 외무부 核담당대사, 갈루치 美국무부 核담당 대사 참석</p> <p>- 美·北 대화와 남북대화가 상호 보완적으로 조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 재확인</p>	<p>0 美·北 전문가회담 북측 수석대표 김정우, 한국형 경수로 거부 천명</p> <p>* 記者會見</p> <p>- 지금 한국형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음. 선친이 태어나지 못한 것을 아들의 이름을 따 수출한다는 것은 실현불가능한 것같음.</p> <p>- 독일 지멘스社는 36기의 경수로를 생산, 27기를 수출했음. 3가지 원칙에 충분히 만족될 것임.</p> <p>- 우리는 재정은 미국이 책임지고 爐型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명백히 했음.</p> <p>- 경수로 제공과 관련 미국측은 일정한 기구(컨소시엄)를 제정하겠다고 제의했으며, 남조선이 재정을 가지고 참여하는 데는 문제가 없음.</p> <p>- 선택방법은 입찰로 하겠음. 낙찰조건은 가격, 지불조건, 기능적으로 우월한 것을 선택하겠음.</p> <p>- 납입 원자력에 대해 해당 가격을 지불할 것임. 그러나 흑연감속로 건설 중단에 따른 보상 비용을 제할 것임. 30년 동안 연구비, 흑연감속</p>	<p>0 매커리 美국무부 대변인, 전문가회담에서는 기술적 문제만 논의 강조</p> <p>- 베를린 전문가회담은 제반 기술적 정보를 교환했을 뿐 협상을 하거나 제안을 주고받는 회담이 아님.</p> <p>- 경수로 지원에 한국이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것을 기술·재정·정치적 조건의 측면에서 가장 실행가능성이 높은 방식으로 보고 있음.</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9.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北간 연락사무소 교 환 등 관계개선이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핵문제 뿐 아니라 남북대화의 진전 이 필요하며, 핵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남북대화가 필 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 - 9. 23 속개되는 美·北 회 담의 성공을 위해서는 북 한에 대해 핵문제 해결시 경수로가 지원될 것이라 는 점을 확신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일치 - 경수로 지원에 韓國의 중 심적 역할이 필수적이며, 경수로 모델은 한국형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 확인 - 북한 핵문제의 완전한 해 결을 위해서는 북한 核활 동에 대한 과거, 현재 및 미래의 核투명성이 확보 돼야 한다는 입장 재확인 - 핵투명성이 보장되지 않 고서는 美·北관계 개선 과 경수로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없다는 점을 확인 - 평화협정 체결문제는 美 北간 협상대상이 아니며 	<p>로 건설 투자비는 수십억 달 러로 추정됨.</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9.15	<p>南·北韓간 합의에 의한 평화체제 구축시까지 정전체제가 준수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p> <p>- 앞으로도 확고한 韓·美 공조체제를 계속 유지·강화해 나가기로 합의</p>		
9.16	<p>0 金泳三 대통령, 갈루치 美 국무부 核담당대사 接見</p> <p>- 核투명성이 확보돼야 경수로를 지원하고 여기에 韓國의 역할이 긴요하다는 내용의 클린턴 대통령 구두메시지 접수</p>	<p>0 외교부 대변인, 특별사찰 거부 재확인</p> <p>* 記者會見</p> <p>- 특별사찰은 우리의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이고 반공화국 압살정책의 일환으로서 우리에게 절대로 통할 수 없음.</p> <p>- IAEA 서기국이 특별사찰문제를 들고 나오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나 IAEA의 불공정성을 정당화하고 우리의 자주권과 안전을 계속 침해하며, 핵문제를 대결의 원점으로 몰아가려는 책동임.</p> <p>- 우리의 핵문제는 자주권을 침해하고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방법으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으며 오직 朝·美회담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음.</p> <p>- IAEA 서기국의 일부계층들이 국제회의·국제기구 공간을 이용하여 계속 압력에 매달린</p>	<p>0 갈루치 美 핵담당대사, 경수로 선택권 北韓에 없다고 강조</p> <p>* 離韓 기자회견</p> <p>- 북한이 爐型을 선택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절충할 의사가 전혀 없음.</p> <p>- 한국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한국 型 경수로는 기술 정치·재정적인 측면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함.</p> <p>- 연락사무소는 양국간의 정치·경제문제 등을 포함한 현안을 다루는 기능을 하게될 것임.</p> <p>- 경수로 지원 국제 컨소시엄 구성과 관련, 美國은 재정</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9. 16		<p>다면 사태는 더욱 복잡해질 것임.</p> <p>○ 平壤放送, 자유민주주의체제 바탕한 통일 주장 비난</p> <p>- 얼마전에 김 〇 〇 은 3단계 통일론을 되풀이하면서 점진적 단계적으로 민족공동체를 형성할 것이라고 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바탕으로 통일을 해보겠다는 용납못할 망발임.</p> <p>-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이란 뒤집어놓은 북진 통일, 승공 통일로서, 그것을 고집하는 것은 본질에 있어 통일을 하지 않고 영구분열하겠다는 수작임.</p> <p>- 예멘식 통일을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와 결부시킨 것부터가 억지이고 그것으로 연방제 통일을 부인하는 것은 무식의 발로임.</p>	<p>적인 부담을 할 준비가 완벽하게 돼 있음.</p> <p>- 연락사무소는 미국과 북한 사이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뒤라야 개설이 가능함.</p> <p>○ 美·日, 『戰域미사일방위』(TMD)계획 착수 합의 * 국방장관회담 (워싱턴)</p> <p>- 북한의 노동 1호등 탄도미사일에 대처하기 위한 『戰域미사일방위』계획에 관한 공동연구에 착수기로 합의</p>
9. 19		<p>○ 조선법률가협회,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 고발 '備忘錄' 발표</p> <p>- 국가보안법은 자주화와 민주화, 생존권을 위한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을 탄압하는 전형적인 反민주 악법임.</p>	<p>○ IAEA 제38차 총회 개막 (빈)</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9.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보안법은 동족을 적으로 규정하고 조국통일운동을 모조리 이적행위로 몰아 거세 말살하며 나라의 분열을 영구화하기 위한 반통일 악법임. - 조선민주법률가협회는 김 〇 〇 정권의 만고대죄를 규탄하여 국제 인권단체들과 법률단체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조치를 취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함. <p>〇 中央放送, 평화협정 당사자는 北韓과 美國이라고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는 문제는 정전협정 체결의 당사자인 우리와 美國 사이에 협의해서 해결할 문제이지 괴뢰들이 끼어들 문제가 아님. - 北과 南 사이에는 이미 오래전에 불가침을 공약한 합의서가 채택되어 있는 만큼 우리와 美國사이에 평화보장체계까지 수립된다면 그것은 조선반도에서 공정하고 철저한 평화보장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될 것임. 	
9.20	<p>〇 金泳三 대통령, 카터 前美 대통령에게 親書</p> <p>* 韓昇洙 駐美대사를 통해 전달</p>	<p>〇 노동신문, 비전향 장기수 김영태 노인 송환 요구 論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래 김영태 노인은 전쟁포로로서 마땅히 정전과 함께 부 	<p>〇 北, 제49차 UN 총회에서 부의장국으로 피선</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9.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대화를 위한 카터 前 대통령의 노력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지속적인 활동을 기대 - 카터 前 대통령은 韓昇洙 대사에게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 중재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 	<p>모처자가 있는 공화국 북반부로 송환되었어야 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영태 노인이 일가친척이 있는 공화국 북반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야말로 오늘 북남 사이에 가장 긴급히 해결해야 할 인도주의적 문제의 하나임 - 김 〇 〇 일당이 이산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는데 관심이 있는 것처럼 떠드는 것이 사실이라면 김영태와 같은 비전향 장기수들의 송환문제부터 해결하여야 함. <p>0 파노프 러 외무차관, 옐친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북한 방문 (9.20~24)</p>	
9.21		<p>0 외교부 부부장 강석주, 美·北 3단계 2차회담 참가차 제네바 도착</p> <p style="text-align: center;">〈 제네바 도착성명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제 쌍방이 문제토의를 진전시키는가 못시키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정치적 의지와 결단에 달려있음. - 쌍방이 진실로 긍정적인 협상 결과를 바란다면 대화부정적인 모든 시도들에 대하여 개의치 말아야 할 것이며 이미 	<p>0 갈루치 美국무차관 보, 특별사찰 연기 가능성 시사 * 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소시엄을 구성하기 위해 韓·日·中·러 4개국과 다른 아시아, 유럽국가들과도 협의를 진행중임. 컨소시엄은 가칭 한국에너지개발기구(KEPO)로 명명하고 있음.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9.21		<p>선택한 길을 따라 주저없이 나가야 할 것임.</p> <p>- 이번 회담에서 주되는 논의는 朝·美 합의성명의 이행을 위 한 동시행동조치들을 맞물리 는데 돌려지게 될 것임.</p> <p>○ 김정숙 사망 45돌 중앙추도대 회 (인민문화궁전)</p> <p>* 참석 : 오진우, 강성산, 이종옥 김영남, 계응태, 최태복, 최영림 양형섭, 홍석형, 김기남, 황장엽 김중린, 김용순 外</p>	<p>- 對北 경수로 지원 에서 韓國은 중심 역할을 할 것임.</p> <p>- 핵문제 해결과정에 서 특별사찰 이행 은 신축적으로 늦 출 수도 있을 것임 그러나 경수로 장 비가 도착하기전까 지는 특별사찰이 이뤄져야 함.</p> <p>○ IAEA 제38차 총회 참가 54개국, 對北 韓 핵안전협정 전 면 이행 촉구 결의 안 제출</p>
9.22	<p>○ 金泳三 대통령, 경수로 지 원관련 클린턴 美대통령에 親書 전달</p> <p>* 외무부대변인 브리핑</p> <p>- 한국형 경수로가 채택되 고 과거 核투명성 확보를 포함한 북한 핵문제 해결 을 전제로 우리가 對北 경수로 지원사업에서 중 심적 역할을 수행할 용의 가 있음을 표명</p> <p>- 북한 핵문제의 궁극적 해 결을 위한 실질적인 남북 대화의 중요성 강조</p>	<p>○ 黨·政 간부들, 김정숙 사망 45돌 즈음 동상에 화환 진정</p> <p>* 참석 : 오진우, 강성산, 이종옥 김영남, 계응태, 최태복, 최영림 양형섭, 홍석형, 백학림, 김광진 김익현 外</p> <p>○ 북한 대표단, 제49차 UN총회 참가차 平壤 출발</p> <p>* 단장 : 외교부 부부장 최수헌</p>	<p>○ 카터 前 美대통령, 확고한 언질없이 再 訪北 않겠다고 언급</p> <p>* 金大中 아태재단 이사장 면담 결과발표시</p> <p>- 南北 양측이 관계 개선을 바란다는 확고한 언질없이는 재방북을 하지 않 겠음.</p> <p>○ 엘친 러 대통령, 김 정일에 러시아형 경 수로 채택 희망</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9. 22			<p>* 이타르 타스통신</p> <p>- 대통령 특사로 訪北중인 파노프 차관을 통한 구두메시지에서 '러시아는 다른 나라를 능가하는 경수로 관련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p> <p>0 무라야마 日총리, 클린턴 대통령에게 경수로 지원 컨소시엄 참여 통보 書翰</p> <p>* 백악관 확인</p> <p>- 일본은 美·北이 핵문제에 대해 포괄적 합의에 도달할 경우 對北 경수로 지원을 위한 국제 컨소시엄에 참가할 것임.</p> <p>0 美항공모함 키티호 크호 東海 배치 (9. 22~10. 3)</p> <p>* 美 태평양함대 사령관 記者會見 (도쿄)</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9.23	<p>0 韓昇洲 외무부장관, 남북 대화 진전, 美·北관계 개선의 전제조건 부인</p> <p>* 국회 외무통일위</p> <p>- 美·北 연락사무소 교환 등 관계개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남북대화의 진전이 필요하나 반드시 전제조건은 아님.</p> <p>- 핵문제에 돌파구가 생기는대로 經協을 재개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으나, 그 해석상에 융통성을 부여할 수 있으며 국익을 고려해 접근하겠음.</p> <p>- 김영삼 대통령과 클린턴 美대통령간 親書교환은 한국형 경수로 기정사실화에 그 뜻이 있음.</p>	<p>0 외교부 대변인, 특별사찰 압력엔 흑연감속로 동결 철회 경고</p> <p>* 記者會見</p> <p>-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우리가 경수로에 목이 매어 군사대상까지 개방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임.</p> <p>- 만일 불순세력들이 특별사찰을 계속 고집하면서 경수로 제공에 난관을 조성한다면 우리는 흑연로체계를 동결시킬 필요를 구태여 느끼지 않음.</p> <p>- 핵문제의 근원적인 해결방도가 특별사찰에 있는것이 아니라 경수로를 제공하는데 있음</p>	<p>0 美·北 3단계 2차회담 개최 (제네바)</p> <p>0 IAEA 제38차 총회, 핵안전협정 전면이행촉구 對北결의안 채택</p> <p>* 찬성 76, 반대 1 (리비아), 기권 10 (중국, 쿠바 등)</p> <p>- 북한의 안전조치협정 불이행에 대해 계속적인 우려를 표명함.</p> <p>- 안전조치협정의 전면적 이행을 위하여 즉각 IAEA에 협력할 것을 촉구함.</p> <p>- 핵안전과 관련한 제반 정보와 장소에 IAEA가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함.</p> <p>0 엘친 러 대통령, 북한과 선린관계 증진용의 표명</p> <p>* 파노프 러 외무차관 통해 김정일에 구두메시지 전달</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9.24	<p>0 韓昇洲 외무부장관, 북한 국제사회 합류 유도 필요 언급</p> <p>* 9.24 관훈클럽· 언론학회 심포지엄</p> <p>- 북한을 개방과 국제화라는 시대의 흐름에 합류토록 유도, 여기에서 남북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함.</p> <p>- 북한에 대한 우리의 경수로 지원은 핵문제해결에서 우리의 역할과 발언권을 증대시켜 주는 것이며 핵문제해결은 물론 南北交流를 통해 북한의 개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는 것임.</p>	<p>0 외교부 부부장 강석주, 北·美 3단계 2차회담 관련 기자회견</p> <p>- 우리는 철저히 미국측에서 경수로를 확고히 보장하는 조건에서만 흑연감속로의 동결을 이행할 것임.</p> <p>- 우리가 핵시설들을 동결하는 시점에서 그에 해당하는 물질적 보상 움직임이 동반되어야 함</p> <p>- 우리나라 해역에 항공모함 전단을 비롯한 방대한 무력을 전개하여 놓고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회담에 중대한 지장을 주게 될 것임.</p> <p>0 외교부 대변인, 美항모 東海 배치 비난 記者會見</p> <p>- 미국이 군사적 위협활동을 계속하게 된다면 우리는 부득이 회담을 위하여 취하였던 핵활동의 일시적인 동결조치를 해제하고 정상적인 평화적 핵활동을 재개하는 길로 나가지 않을 수 없음.</p>	<p>0 美·北 3단계 2차회담 계속</p> <p>* 전문가회담</p>
9.25		<p>0 외교부 대변인, IAEA총회 대북 결의안 채택 비난 談話</p> <p>- 이번에 채택된 결의는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과 안전을 침해하는 시도로 보면서 그것을</p>	<p>0 美·北 3단계 2차회담 계속</p> <p>* 전문가회담</p> <p>0 페리 美 국방장관, 北核타결 안되면 武</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9.25		<p>단호히 배격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IAEA의 부당한 제재조치로 인하여 IAEA에서 탈퇴한 조건에서 그어떤 결의도 인정하거나 이행할 의무가 없음. - 만일 IAEA가 공정성과 독자성을 잃고 우리에게 대한 압력수단으로 계속 악용된다면 지금까지 IAEA 사찰과 관련하여 취한 선의적 조치들을 재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 <p>○ 北韓, 단군릉 준공식에 남한 정당·사회단체 대표 초청 편지 (平壤放送 공개)</p> <p>* 『사회민주당』, 『조국전선』 『범민련』 북측본부, 『직총』 등의 명의로 남한내 45개 단체, 74명에게 초청 便紙 발송</p> <p>< 사회민주당 중앙위 명의 便紙 요지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군릉 재건이 완공되어 오는 10월 초순에 준공식을 거행하게 됨. - 반만년 역사국인 우리나라의 유구성과 단일민족의 기상을 세계만방에 떨치는 민족적 경사임. 	<p>力使用 경고 * NBC-TV 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은 북한이 핵 사찰을 허용토록 요구하고 있는 국제협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北韓에 강압외교 수단을 사용할 수 밖에 없음. - 북한이 국제사회와 協力할지, 아니면 끝내 對決할지 양자택일해야 할 것임 - 누구도 핵문제로 한반도에서 戰爭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나 유사시를 대비해 再處理 설비를 파괴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음.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9.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이 역사적인 행사에 [남한인사들을] 정중히 초청 하면서 평양에 체류하는 동안 신변안전과 모든 편의를 보장 하리라는 것을 확인하는 바임 	
9.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黨·政간부들, 전천군 상업관 리소 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 : 강성산, 김영주, 계응태 한성룡, 최태복, 최영림, 양형섭 홍석형, 연형목 外 ○ 제4차 블럭불가담 및 발전도상 나라들의 平壤영화축전 (9. 26~10. 4, 국제영화회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北 3단계 2차회 담 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석대표회담 ○ 데이비드 키드 IAEA 대변인, 北 특별사 찰 거부 우려 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AEA는 平壤의 거 부에 매우 우려하 고 있음. - 특별사찰을 거부하 는 한 경제지원 제 공 용의에도 불구 하고 이를 실행하 기는 어려울 것임. ○ 모스크바방송, 『朝·蘇 우호협력조약』 개정 시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와 조선이 많은 쌍무협정들을 새롭게 고찰할 때 도 됐음. - 『朝·蘇 우호협력 조약』은 96년까지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9.26			<p>효력을 가지므로 유효기간 1년전에 조약의 장래에 관한 결정을 해야함.</p>
9.27	<p>0 국회 외무통일위, 韓國 주도 없이 北 경수로 부담 不可 천명</p> <p>* '북한 핵문제 해결 및 경수로 제공사업에 관한 외무통일위 입장'</p> <p>- 북한 핵문제는 투명하게 해결되어야 하며, 政府는 北韓 핵문제 협의와 병행하여 남북기본합의서 및 비핵화 공동선언이 이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함.</p> <p>- 북한 경수로 제공사업에서 대한민국의 어떤 부담도 대한민국의 참여 아래 그 주도적 역할을 보장한다는 전제하에서만 약속, 시행될 수 있음.</p> <p>0 政府, 국내기업의 北韓 사무소 설치기준 제정 방침</p> <p>* 金泰淵 경제기획원 차관 신경제추진회의 보고</p> <p>-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에 대비, 『南北경제협력사업관리규정』을 제정해 국내기업이 北韓지역에</p>	<p>0 인민무력부 대변인, 美 항공모함 동해 배치 비난 談話</p> <p>- 미국이 지금까지 표방해온 회담을 통한 핵문제 해결이라는 위선을 스스로 벗어던지고 힘의 대결을 공공연히 선언한 것이나 같음.</p> <p>- 미국이 무력대결로 나오고 있는 이상 우리도 언제까지나 회담에만 매달려있을 수 없음</p> <p>- 우리 인민군대는 특별사찰을 통하여 군사대상을 개방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절대로 허용할 수 없음. 우리는 그러한 회담 자체를 인정하지 않음.</p> <p>- 미군부 보수세력들은 50년대의 치욕스러운 교훈을 망각하지 말아야 함.</p> <p>0 黨·政 간부들, 맹산군과 은포 협동농장 참관</p> <p>* 참석 : 강성산, 김영주, 계응태, 한성룡, 최태복, 최영림, 양형섭, 홍석형 外</p>	<p>0 美·北 3단계 2차 회담 계속</p> <p>* 수석대표회담</p> <p>0 데무린 러 외무부 대변인, 北·러 우호관계 증진 언급</p> <p>* 파노프 외무차관 訪北결과 브리핑</p> <p>- 北·러 양국은 우호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로 했으며 러시아의 對北 경수로 제공 제의를 북한측이 만족스럽게 받아들였음.</p> <p>0 美·러 정상회담, 北核 긴밀협력 합의 (워싱턴)</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9.27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겠음.	0 북한 黨·政대표단, 중국 창건 45돌 경축행사 참가차 중국 방문(9.27~10.4) * 단장 : 부주석 이종욱	
9.28	0 외무부, 평화체제 전환에 포함될 내용으로 '상호통행제도 확립' 제시 * 국정감사 서면보고 - 南北기본합의서에 따라 남북한간의 직접대화를 통해 현행 정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함. - 평화체제의 주요내용에는 현 군사분계선 상호인정, 상호경계선 불가침, 상호통행제도 확립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임.	0 『祖平統』서기국, 남한 당국의 학생탄압 규탄 보도 - 최근 남조선에서는 청년학생들과 애국적 인민들에 대한 문민파쇼광들의 야수적 탄압 만행이 더욱 악랄하게 감행되고 있음. - 남조선 통치배들의 검거소동은 동족의 유고를 기화로 반인륜적 야만행위를 감행한 제놈들을 규탄하는 각계층 인민들에 대한 비열한 보복행위임 -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은 문민파쇼광들을 국가보안법과 함께 영원히 매장해버리기 위하여 더욱 과감히 투쟁할 것임.	0 美·北 3단계 2차회담 계속 * 수석대표회담 0 클린턴 美대통령, 광범위한 핵非확산 과제 추진 천명 * 제49차 UN 총회 연설 - 美國은 △北韓 핵개발억제 △핵물질 생산중단 국제협약 체결 △핵탄두 폐기 △NPT 무기연장 등 광범위한 핵非확산 과제를 추진해 나갈 것임. 0 日, 한반도 유사시 군용기 派韓 타진 - 곤도 日중의원 의원 등 3명은 李洪九 통일원장관을 예방한 자리에서 "한반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일본인들을 이동시키기 위해 정부 전용기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9.28			<p>를 파견시킬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일본내에 있다”고 발언</p> <p>0 日 니시모토 자위대 통합막료회의 의장, 韓·中·러와 합동 군사훈련 용의 표명</p> <p>- 日本 자위대는 앞으로 韓·中·러 등 주변국가의 군대와 합동훈련을 구상하고 있음.</p> <p>0 엘친 러 대통령, 金正일 후계지지 표명 * 이즈베스티야紙, 파노프 외무차관 발언 인용 보도</p> <p>- 북한에서 대안없는 후계자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는 러 정부는 김정일을 국가수반에 오를 유일한 후보로 지지했음.</p>
9.29	<p>0 韓昇洲 외무부장관, 核협상관련 더이상 양보없다고 발언</p> <p>- 한국형 경수로 채택이나</p>	<p>0 金平一 駐핀란드 대사, 主席 선출회의 조만간 개최 언급 * 최근 佛감마통신 회견</p> <p>- 지금은 추모기간이라 대규모</p>	<p>0 美·北 3단계 2차회담 계속 * 수석대표회담</p> <p>※ 10.5 속개</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9.29	<p>특별사찰 실시 등에 관한 韓美 양국의 입장은 최저선이기 때문에 더이상 양보할 수 없음.</p> <p>- 정부는 美·北 회담의 결렬 등 모든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음.</p>	<p>회의를 열 분위기가 아님. 조만간 선출을 위한 회의가 있을 것임.</p> <p>- 미국은 오랫동안 우리의 적이었지만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음.</p> <p>- 정치체제가 어떻든간에 한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민의 복지문제임.</p> <p>○ 『朝平統』 서기국, 남한 당국의 대학생시위 단속 비난 報道</p>	<p>○ 강택민 중국 주석, 北韓 부주석 이종욱 접견</p>
9.30	<p>○ 金憲 안기부장, 북한지역 콜레라 만연 사실 언급 * 국정감사 보고</p> <p>- 北韓의 함흥, 신포 등 동해안지역과 서해안의 해주 및 평양, 개성 등 내륙일대까지 콜레라가 만연, 북한 당국은 방역대책에 부심하고 있음.</p> <p>○ 韓·美 외무장관, 北韓核 집중 논의 (뉴욕)</p> <p>- 核투명성이 확보돼야 對北경수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韓·美 긴밀 공조체제 유지 합의</p>	<p>○ 단군릉복구위원회 대변인, 단군릉 준공식 남한인사 초청 관련 談話</p> <p>- 우리는 남조선의 일부 인사들이 우리의 초청에 호응하여 平壤 방문의사를 표시한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하며 환영함</p> <p>- 아직 초청편지를 받지 못한 인사들에게는 이미 방송으로 보낸 우리의 초청편지가 유효하다는 점을 다시금 알림.</p> <p>- 우리는 10.1 부터 板門店에 해당하는 영접인원들을 내보내 남측에서 오는 각계인사들을 맞이할 것이며, 만일 베이징을 경유하여 平壤을 방문하려는 인사들은 중국주재 우리나라</p>	<p>○ 美·北 실무자회담 (제네바)</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9.30		<p>라 대표부에서 따듯이 영접할 것임.</p> <p>0 平壤放送, 전력공급문제 관련 남북한간 협상說 否認</p> <p>- 남조선의 안기부가 개입해서 날조유포시킨 모략설임.</p> <p>- 우리는 남조선과 전력공급문제를 가지고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이 없으며 그런 문제도 제기한 적이 없음.</p> <p>0 黨창건기념비 착공식 (평양 문수거리)</p> <p>* 참석 : 강성산, 계응태, 한성룡, 홍성남, 홍석형, 김기남, 박남기</p>	

南北對話 年表

1994. 7. 1~9. 30

發行日：1994年 10月 21日

發行處：統一院 南北會談事務局

본 『南北對話 年表』는 南北會談 및
기타 南北關係와 有關한 對內 主要動向
· 北韓 主要動向 · 周邊動向 등을 綜合
整理한 것으로서 統一 · 對話업무의 基
礎資料로 活用하기 위하여 作成된 것입
니다.